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12-0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❸ 2021년도

# 브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제주학연구센터 편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 ᄇᆞ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제주학연구센터 편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12-0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❸**

# ᄇᆞ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Tel. 064-726-9154
**발행인** 김순자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
Tel. 064-723-7580

ISBN 979-11-974849-4-0

© 제주학연구센터, 2021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12-0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❸ 2021년도

# 브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제주학연구센터 편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 제주어 ‘ᄇᆞ름도레ㄱ’가 중심을 잡고 더 잘 돌아가길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어종합상담실을 열고 ‘들어봅서’ 전화를 개통한 지 어느덧 10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주어종합상담실도 세 돌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에는 다양한 분들이 ‘몰른 거’를 ‘들어보젠’ 연락을 주십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제주어 표기는 늘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 제주가 좋아 제주로 거처를 옮겨 이곳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자 하는 이주민들, 도외에서도 고향의 말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자 문의를 하시는 분들, 제주어의 독특함을 느끼며 방송에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주어종합상담실을 찾습니다.

상담 자료집에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는 홍보지나 웹툰, 표어를 만드는 데에 제주어를 사용하고 싶다며 감수해

달라고 하거나, 표준어로 만든 문장을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요청도 잦았습니다. 제주어의 가치를 알고, 제주어를 널리 알리는 데에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해 제주어종합상담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어 표기, 제주어 문법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꼼꼼하게 제주어 자료를 검토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오실 때면 제주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 세 번째 상담 자료집의 이름을《ᄇᆞ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이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자료집《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두 번째 상담 자료집《ᄆᆞᆯ마농고장은 수선화 마씨게》라는 제목이 반향을 불러 일으켜 책 이름을 짓는 데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제목은 바람이 불 때 바람개비가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 제주어종합상담실도 제주어 바람에 탄력을 받아 더 힘을 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제주어종합상담실 업무를 책임져 상담 의뢰자들에게 성의껏 응대를 하고 상담 내용을 정리해 예쁜 자료집으로 꾸며준 김미진 전문연구위원과 권미소 전문연구원, 서수빈 연구보조원과 오은주 위촉연구위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상담

자료를 꼼꼼히 읽고 자문해 주신 강영봉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님과 제주국제대학교 오창명 교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책을 잘 꾸며주는 도서출판 한그루 식구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앞으로도 제주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제주어의 방향키를 잘 잡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수다양.

**김 순 자** 제주학연구센터장

ᄇᆞ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목차


- 상담 자료집을 내며 4
- 일러두기 8
- 한눈에 보는 2021년 상담 통계 10

1. 단어 15
2. 구와 문장 53
3. 뜻풀이 81
4. 표기 93
5. 어원과 지명 119
6. 문법과 발음 127
7. 기타 139
- 찾아보기 147

## 일러두기

1. 이 상담 자료집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이 한 해 동안(2020. 12. 1.~2021. 11. 30.) 상담한 자료 321건을 단어, 구와 문장, 뜻풀이, 표기, 어원과 지명, 문법과 발음, 기타 등 7개의 분야로 나눠 문답 형식으로 꾸민 것이다.

2. 상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산딸기'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30대, 남, 도내)"처럼 질문 뒤에 질문자의 정보를 밝혔다. 질문자의 정보는 이름, 연령대, 성별, 지역 순으로 표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밝힌 경우는 '김○○'라고 하였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처럼 처리하였고 질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알 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3. 실시간 상담 진행으로 답변에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 표시를 하고 편집 과정에서 덧붙였다. 노래 가사나 시, 글 한 편 등 많은 양을 제주어로 대역하거나 감수한 경우는 지면상 모든 내용을 싣지 못하였다.

4. 하나의 단어에 대한 제주어나 표준어를 묻는 질문을 '단어' 항목, 두 개 이상의 단어나 문장은 '구와 문장' 항목으로 묶었다. 또한 '뜻풀이'는 뜻을 묻는 상담 내용 중에서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것만을 모았다. '어원과 지명' 항목에는 단어의 어원을 묻거나 지명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법과 발음'은 어학적으로 제주어에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의 질문과 제주어 발음에 대한 문의를, '기타'는 《제주어사전》 및 제주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책 구입, 제주어 교육 등 부가적인 질문을 모았다.

5. 상담 내용은 단어 관련 99건(31%), 구와 문장 89건(28%), 뜻풀이 관련 31건(10%), 표기 관련 59건(18%), 어원과 지명 8건(2%), 문법과 발음 15건(5%), 기타 20건(6%)이다.

6. '단어' 관련 99건 가운데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50건(16%),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49건(15%)이고, '구와 문장' 89건 가운데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74건(23%),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15건(5%)이었다.

7. 제주어종합상담실 이용객의 지역적 분포는 도내 거주자와 도외 거주자로 1차 분류하고, 제주 출신과 제주 출신이 아닌 경우로 2차 분류 후 정리하였다. 제주 지역 거주자는 236명(73%), 도외 거주자는 66명(21%)이었다. 제주 지역 거주자 중에는 이주민 19명(6%)이, 도외 거주자 중에는 제주 출신 6명(2%)이 각각 포함되었다.

8.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94명(2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0대 92명(28%), 30대 58명(18%), 50대 42명(13%), 60대 15명(5%), 10대, 70대는 각각 2명(1%) 순이었다.

9. 성별에 따른 분포는 여성이 192명(60%), 남성이 119명(37%)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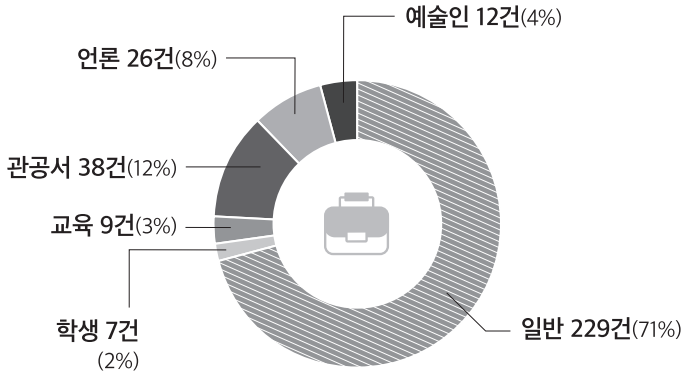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2021년 상담 통계

**상담 기간:** 2020. 12. 1.~2021. 11. 30.　　**상담 건수:** 총 32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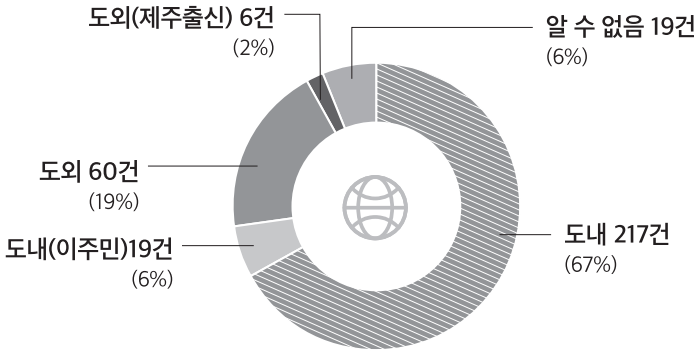
| 직업 | 건수 | 지역 | 건수 | 성별 | 건수 | 상담 방법 | 건수 | 세대 | 건수 | 질문 유형 | 건수 |
|---|---|---|---|---|---|---|---|---|---|---|---|
| 일반 | 229 | 도내 | 217 | 여성 | 192 | 전화 | 212 | 10대 | 2 | 단어 (표제) | 50 |
| 학생 | 7 | 도내 (이주민) | 19 | 남성 | 119 | 전자 우편 | 106 | 20대 | 92 | 단어 (제표) | 49 |
| 교육 | 9 | 도외 | 60 | 알 수 없음 | 10 | 누리집 | 3 | 30대 | 58 | 구와 문장 (표제) | 74 |
| 관공서 | 38 | 도외 (제주 출신) | 6 | | | | | 40대 | 94 | 구와 문장 (제표) | 15 |
| 언론 | 26 | 알 수 없음 | 19 | | | | | 50대 | 42 | 뜻풀이 | 31 |
| 예술인 | 12 | | | | | | | 60대 | 15 | 표기 | 59 |
| | | | | | | | | 70대 | 2 | 어원과 지명 | 8 |
| | | | | | | | | 알 수 없음 | 16 | 문법과 발음 | 15 |
| | | | | | | | | | | 기타 | 20 |
| 합계 | 321 | | 321 | | 321 | | 321 | | 321 | | 321 |

※ (표제)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묻는 질문 유형이다.
(제표)는 제주어를 표준어로 묻는 질문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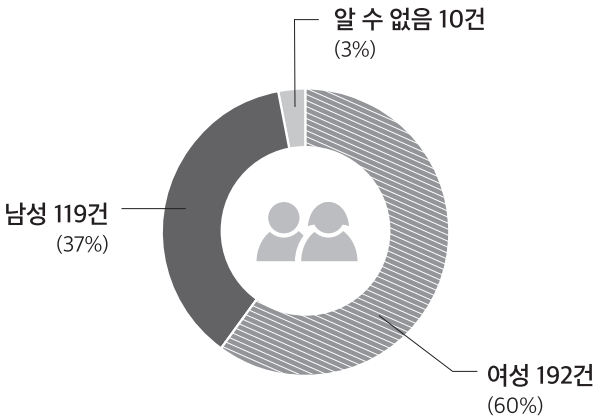
## 직업별


예술인 12건(4%)
언론 26건(8%)
관공서 38건(12%)
교육 9건(3%)
학생 7건
(2%)
일반 229건(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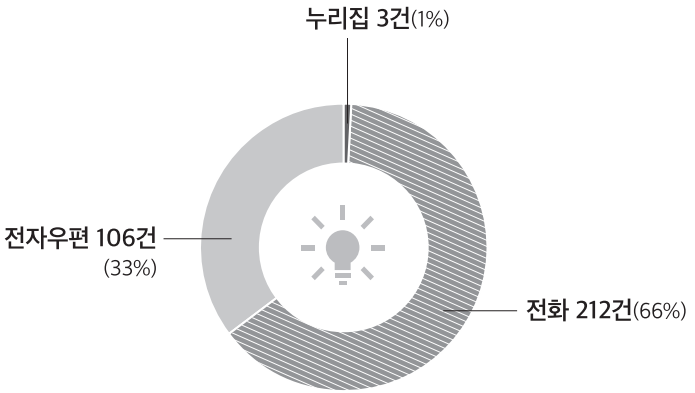
## 지역별


도외(제주출신) 6건
(2%)
알 수 없음 19건
(6%)
도외 60건
(19%)
도내(이주민)19건
(6%)
도내 217건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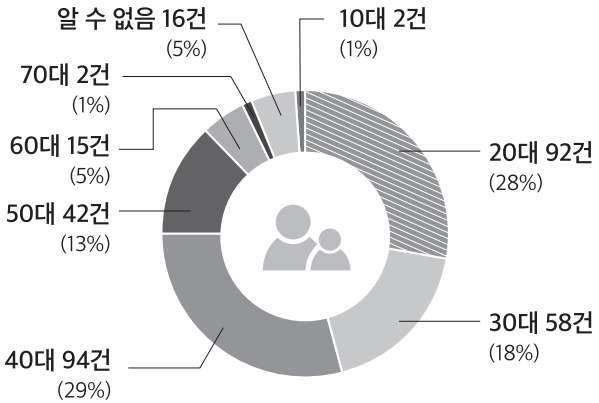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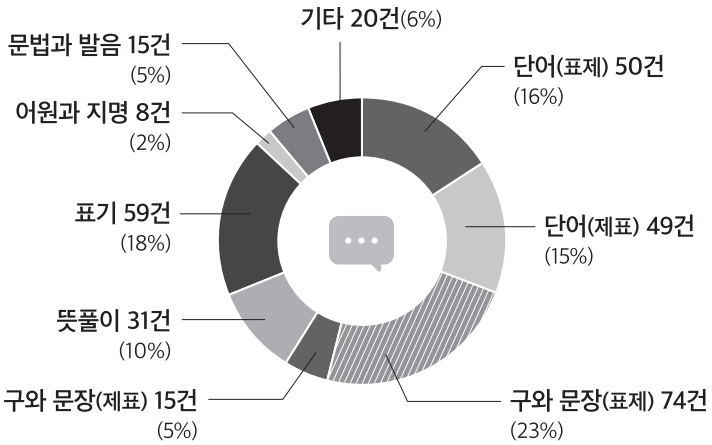

## 상담 방법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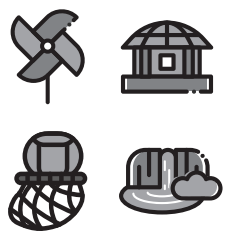

알 수 없음 16건
(5%)
10대 2건
(1%)
70대 2건
(1%)
60대 15건
(5%)
50대 42건
(13%)
20대 92건
(28%)
30대 58건
(18%)
40대 94건
(29%)

## 질문 유형


기타 20건(6%)
문법과 발음 15건
(5%)
어원과 지명 8건
(2%)
단어(표제) 50건
(16%)
표기 59건
(18%)
단어(제표) 49건
(15%)
뜻풀이 31건
(10%)
구와 문장(제표) 15건
(5%)
구와 문장(표제) 74건
(23%)

ᄇᆞ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 1. 단어



## 표준어를 제주어로

**1**

**문** '국자'를 제주에서는 '남자'라고 하나요?(좌○○, 30대, 남, 도내)

**답** 표준어 '국자'를 제주에서는 '남자'라고 합니다. 궁중에서 '국자'를 이르는 말로 '자'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재료가 '나무'여서 '남자'라고 합니다. 즉, '남자'는 '나무로 만든, 국을 뜨는 데 쓰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2**

**문** '하나'부터 '열'까지의 숫자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알 수 없음)

**답** '하나/ᄒᆞ나', '둘', '셋/싯/서이', '넷/닛/너이', '다섯/다슷/다숫', '여섯/ᄋᆞ섯/ᄋᆞ슷/ᄋᆞ숫', '일곱', 'ᄋᆞ답/ᄋᆞ돌/ᄋᆞ둡', '아홉/아옵', '열'이라고 합니다.

**3**

**문** 제주 서쪽에서 들은 말인데 해녀들의 물옷에 달린, 천으로 된 단추를 뭐라고 하나요?(문○○, 60대, 남, 도내)

**답** '돌마기', '돌메기'라고 합니다. '벌ᄆᆞ작', 'ᄆᆞ작단추'라고도 하는데 헝겊 조각을 벌 모양으로 맺어서 만든 단추입니다. '돌마기/돌메기'는 옛말 '돌마기'에서 온 것입니다. 개량 한복 등에서

볼 수 있는 매듭단추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 4

**문** '조심하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이주민))

**답** '조심하다'의 방언형은 '조심허다' 또는 '조심ᄒᆞ다'입니다. 간혹 '멩심허다' 또는 '멩심ᄒᆞ다' 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명심하다'의 방언형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문** '대문'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60대, 남, 도외)

**답** '대문'은 '대문'이라 합니다. 다만 제주에서는 집 앞 마당으로 들어가는 곳에 세워진 정문, 즉 정문으로서 '바깥 대문'을 '이문'이라고 합니다. 제주에는 '대문'이 없기 때문에 '올래'가 대문 구실을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가로로 걸쳐 놓는 길고 굵직한 나무인 '정', '정남', '정낭', '정살' 등이 '대문' 구실을 했습니다.

## 6

**문** 전라남도에서는 '싸리문'을 '새랍'이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60대,남, 도외)

**답** '사립문'의 한 종류인 '싸리문'을 제주에서는 '살체기문', '살착문'이라고 합니다.

## 7

**문** '시끌벅적'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장○○, 50대, 여, 도내)

**답** '왕왕작작'이라고 합니다. '왕왕작작'은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시끄럽게 떠드는 모양을 가리키는 제주어입니다. 표준어의 '왁자지껄'에도 해당됩니다.

## 8

**문** '아기자기'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60대, 남, 도외)

**답** 여러 가지가 오밀조밀 어울려 예쁜 모양을 이르는 말인 '아기자기'는 제주어로도 '아기자기', '아기제기'라고 합니다.

## 9

**문** 다음 어휘들을 제주어로 알려 주세요.(○○○, 20대, 남, 도내)

**답**

| 표준어 | 제주어 |
|---|---|
| 넓은 | 넙은/널른/너른 |
| 두껍다 | 두껍다/두덥다/두둡다/두텁다 |
| 무거운 | 벤/무거운 |
| 짧다 | 주르다/줄르다/쭈르다/쭐르다 |
| 좁다 | 좁다<br>**※ 좁다랗다:** 좁작ᄒᆞ다 |
| 얇다 | 얄루다/얄룹다/얇다 |
| 아내, 마누라 | 아내, 마누라 |
| 남편, 지아비 | 남펜/냄펜, 소나의/지아비 |

| 표준어 | 제주어 |
| --- | --- |
| 이(蝨)<br>**※기생충**(머릿니) | 니/늬 |
| 뱀 | 벰/버염/베염/베미 |
| 벌레 | 버렝이/베렝이 |
| 막대, 작대기 | 막당이/막뎅이/막데기, 작데기/가린작데기/거린작데기/거릿댕이/낭작데기/작쉬 |
| 열매 | 여름/으름/열매/올매 |
| 씨, 씨앗 | 씨, 씨앗 |
| 잎, 나뭇잎 | 입/섭/썹, 낭입/낭섭/낭썹 |
| 뿌리 | 뿔리/뿌리/뿌렝이 |
| 껍질 | 걱죽/겁질/껍질/껍데기 |
| 풀, 잔디 | 쿨/풀, 테/테역 |
| 밧줄 | 밧줄/뱃줄/베<br>**※바:** 배 |
| 살갗 | 솔갖/살갖<br>**※ 살가죽:** 솔가죽. 솔카죽 |
| 꼬리 | 꼴리/꼬리 |
| 털 | 껄/털 |
| 깃털 | 짓/짓털/깃털 |
| 머리 | 머리/데멩이(속어) |
| 머리카락 | 머리까락/머리꺼럭/머리껄/머리껍 |
| 무릎 | 무럽/독/독머리/독무럽/독무리/독믁릅/독믁리/독믁립/독믁릅/독믈리/도갓믈리 |
| 깨물다 | 깨물다 |

| 표준어 | 제주어 |
| --- | --- |
| 빨다(옷을 빨다, 입으로 빨다) | 뿔다 |
| 잠자다 | 줌자다 |
| 자르다 | 주르다/줄르다 |

## 10

**문** '올곧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50대, 여, 도외)

**답** '올곧다'에 대응되는 제주어는 없습니다. 표준어 형태와 같습니다. 참고로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르다의 의미인 '곧다'는 '고짝허다', '곧작허다', '구짝허다', '굳작허다' 등으로 나타납니다.

## 11

**문** '아이'의 제주어가 '아의'가 맞나요?(박○○, 20대, 남, 도내)

**답** '아이'는 제주어로 '아이', '아의', '아희'라고도 합니다. '아의'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옛말이 '아히'에서 온 어휘이기 때문입니다. '아의'라고 할 때는 '아히'의 아래아(ㆍ)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12

**문** '계집', '사나이'의 제주어가 '지집', '수나의'가 맞나요?(○○○, 20대, 남, 도내)

**답** '계집'은 제주어로 '지집', '기집', '제집'이라고도 합니다. 추가로 '계집아이'는 '기집아이[기지빠이]', '지집아이[지지빠이]'라고

도 하고, '사나이'는 제주어로 '소나의', '소나이', 'ᄉᆞ나의', 'ᄉᆞ나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나의'나 'ᄉᆞ나의'는 옛말 '사히'나 '손아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3

**문** '다리'의 제주어가 '가달'이 맞나요?(○○○, 20대, 남, 도내)

**답** 신체의 '다리[脚]'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가달', 또는 'ᄃᆞ리', 표준어와 동일한 '다리'라고합니다.

※ 가달'은 고려가요 〈처용가〉에 나오는 '가ᄅᆞᆯ이 네히어라'의 '가ᄅᆞᆯ'에서 온 말로 보입니다.

## 14

**문** '오르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도내)

**답** '오르다', '올르다'라고 합니다.

## 15

**문** '기부하다'에 적합한 제주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정○○, 50대, 남, 도내)

**답** '기부하다'는 한자어 '기부(寄附)'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제주어로 '기부ᄒᆞ다' 또는 '기부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주어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한편, 관련된 단어로 'ᄂᆞ누다(나누다)'와 '게석'이 있습니다. '게석'은 상군 해녀가 하군 해녀에게 조금 나눠 주는 해산물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 16

**문** '양푼'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50대, 남, 도내)

**답** '낭푼', '낭푼이', '양푼이'라고 합니다.

## 17

**문** '많다'와 '많이'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도내)

**답** '많다'는 '하다', '많이'는 '하영'이라고 합니다.

## 18

**문** 〈우리말샘〉에 따르면 '걷다(걸음을 걷다)'의 제주어는 '둥글다'로 되어 있습니다. '둥글다'가 '걷다'에 해당하는 제주어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0대, 남, 도내)

**답** '둥글다[輾]'는 '뒹굴다, 구르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제주어입니다. '둥글어 가다' 또는 '둥글어 오다'와 같이 쓰일 때는 '걷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걷다'는 굴러오는 것처럼 걷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말샘〉 사전은 개방형 사전이므로 잘못 등재된 내용을 참여자 의견 제시 방법으로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샘〉 사전에 올라 있는 '둥글다[005]'가 '걷다'의 제주 방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19

**문** '자라다'의 제주어가 '욱다'라고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말샘〉 사전에는 '읔다'라는 단어가 없는데 '읔다'가 맞는 제주어인가요?(○○○, 20대, 남, 도내)

**답** '읔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제주어의 '읔다'는 '어린아이가 지능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자라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말샘〉을 검색해 보시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의 의미로 '역다'가 올라 있는데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샘〉에는 제주어에 쌍아래아(ㆍㆍ)가 들어 있는 어휘는 표제어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ㅕ', 'ㅛ', 'ㅑ' 등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읔다'는 표준어의 '역다'의 뜻 '늘 자신에게만 이롭게 꾀를 부리는 성질이 있다' 또는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을 잘 피하는 꾀가 많고 눈치가 빠르다'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 20

**문** '산딸기'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30대, 남, 도내)

**답** 제주에서는 '산딸기나무'를 '한탈낭'이라고 하고, '산딸기나무'에 달리는 열매인 '산딸기'는 '한탈'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딸기'의 한 종류로 보리가 익을 무렵 따 먹는 '산딸기'는 '보리탈'이라고도 합니다.

## 21

**문** '도전', '희망', '모험'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도전', '희망', '모험' 모두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따로 없습니다.

## 22

**문** '조금만'의 의미를 가진 제주어에는 뭐가 있나요?(허○○, 50대, 남, 도내)

**답** 'ᄒᆞ꼼만', 'ᄒᆞ끔만', 'ᄒᆞ썰만' 등이 있습니다.

## 23

**문** 서당에서 훈장님께 드리는 수업료를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이○○, 60대, 남, 도외)

**답** 서당 수업료는 한자어 '강미(講米)', '공량(貢糧)', '학세(學稅)', '학채(學債)' 등으로 불렀습니다. 제주에서는 '서채(書債)', '글채'라고 합니다.

## 24

**문** '자리잡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20대, 남, 도내)

**답**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인 '자리잡다'는 제주어로도 '자리잡다'입니다. 이런 경우 굳이 제주어로 대역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말로 '자리 ᄎᆞ지허다' 정도를 쓸 수 있겠습니다.

## 25

**문**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제주어로 어떻게 부르나요?(김○○, 30대, 여, 도외)

**답** '어머니' 또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엄마'를 '어멍'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 26

**문** '누나'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50대, 여, 도외)

**답** '누나'는 제주에서도 '누나'라고 합니다.

## 27

**문** '뿌리', '꽃', '바람'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남, 도내(이주민))

**답** '뿌리'는 '불휘', '불희', '불리', '뿔리', '뿌렝이' 등이라고 하며, '꽃'은 '고장', '곳', '꼿', '바람'은 'ᄇᆞ름', 'ᄇᆞᄅᆞᆷ'이라고 합니다.

## 28

**문** '더군다나', '게다가'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남, 도내)

**답** '더군다나'와 '게다가'는 제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더군다나'나 '게다가'를 대신하는 제주어는 없습니다.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비슷한 의미로 '경허곡', '게곡(그리고)' 등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왔어. 게다가 바람도 불었어.'의 상황에서 '오널 비 완. 게곡 ᄇᆞ름도 불언.' 정도로 쓰이는 듯합니다.

## 29

**문** '또', '또한'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20대, 남, 도내)

**답** 표준어 '또'의 제주어로 '또시'가 있습니다.

## 30

**문** '보다시피'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20대, 남, 도내)

**답** 제주에서도 '보다시피'를 사용합니다. '처럼'의 제주어인 '추룩'을 사용하여 '보는 거추룩'과 같이 쓰기도 합니다.

## 31

**문** '은커녕'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20대, 남, 도내)

**답** '는(은/ㄴ)커녕'과 의미상으로 유사한 제주어는 '(이)랑마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떡이랑마랑 밥도 못 먹엇저.(떡은커녕 밥도 못 먹었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2

**문** '-(하)던'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예) 분탕을 일삼던(박○○, 20대, 남, 도내)

**답** '-(하)던'은 '-(ᄒᆞ)단' 또는 '-(허)단'으로 나타납니다. '-(ᄒᆞ)단'은 'ᄒᆞ단 일 멈췅 돌아왓저.(하던 일 멈춰서 돌아왔다.)'처럼 사용합니다.

## 33

**문** '유채나물'을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40대, 남, 도내)

**답** '지름ᄂᆞ물' 또는 '지름ᄂᆞᄆᆞᆯ'이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유채꽃을 '지름고장'이라고 합니다.

## 34

**문** '된장'을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40대, 남, 도내)

**답** '된장'은 제주에서 '개미장', '뒌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바닥에 가라앉은 된장 찌꺼기인 '토'를 '개미', '장개미', '장칼'이라고 합니다.

## 35

**문** '이야기'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최○○, 40대, 남, 도내)

**답**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예기', '이왁', '이와기', '엿말' 등으로 나타납니다.

## 36

**문** '정미소'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김○○, 40대, 여, 도내)

**답** '하릉방'입니다. 덧붙여 '방앗간'은 '방엣공장/방엣간/방앗간', '기곗방/기곗공장', '클방/클빵', '방이왕' 등으로 말합니다.

## 37

**문** '무'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20대, 여, 도외)

**답** '무수', '놈삐'입니다. '무수'는 옛말 '무수'에서 온 말로, '무청'을 비롯하여 깍두기를 만드는 무의 뿌리까지를 뜻하는 어휘입니다. '놈삐'는 원래 무의 뿌리만을 의미했으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무'의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38

**문** ‘마당’, ‘놀이’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제주에서도 ‘마당’, ‘놀이’라고 합니다. ‘놀이’는 ‘노념’이라고도 합니다.

## 39

**문** ‘엉덩이’는 제주어로 무엇인가요?(○○○, 30대, 남, 도내)

**답** ‘엉덩이’, ‘엉뎅이’, ‘엉둥이’, ‘엉치’라고 합니다.

## 40

**문** ‘전통’, ‘문화’는 제주어로 무엇인가요?(○○○, 50대, 여, 도내)

**답** ‘전통’과 ‘문화’는 한자어이므로 제주에서도 똑같이 ‘전통’, ‘문화’로 사용합니다.

## 41

**문** ‘이만큼’은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내)

**답** ‘이만이’, ‘이만썩’ 정도로 사용됩니다. 덧붙여 ‘요만큼’은 ‘요만이’, ‘요만썩’, ‘그만큼’은 ‘그만이’, ‘그만썩’이 됩니다.

## 42

**문** ‘아직까지’를 제주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30대, 여, 도외(제주 출신))

**답** ‘아직까지’는 ‘아직’과 ‘까지’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아직’은 제

주에서 '아적' 또는 '안직'으로 나타나고, '까지'는 '까지/꺼정/꺄장/꺄지'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제주어로 '아적까지/아적꺼정/아적꺄장/아적꺄지' 또는 '안직까지/안적꺼정/안적꺄장/안직꺄지'처럼 표현이 가능합니다.

## 43

**문** '시원하다'의 제주어는 '서능서능'인가요?(○○○, 20대, 여, 도내)

**답** '서능서능'은 '차갑다'는 의미를 가지는 '써능ᄒᆞ다', '서능ᄒᆞ다'와 관련이 있을 듯하지만 '서능서능'처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시원하다'는 '시원허다/시원ᄒᆞ다' 또는 '씨원허다/씨원ᄒᆞ다'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제주어에서 '시원ᄒᆞ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로는 '산도롱허다' 또는 '산도롱ᄒᆞ다', '산도록허다' 또는 '산도록ᄒᆞ다' 등이 있습니다.

## 44

**문** 제주어로 '갈잎나무'를 어떻게 말하나요?(박○○, 20대, 남, 도내)

**답** 가을이나 겨울에 잎이 떨어졌다가 봄에 새잎이 나는 나무를 '갈잎나무'라고 하는데 제주에서 따로 이러한 나무를 이르는 말은 없습니다. 굳이 바꾸자면 '갈입낭' 정도가 될 듯합니다. 제주에서 '잎'은 '섭/썹/입' 등으로 나타나고, '나무'는 '나모/나무/남/낭'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45

**문** '우풍'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40대, 남, 도내)

**답**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인 '우풍'은 제주에서도 '우풍'으로 사용합니다. 표준어 규범 표기는 '외풍(外風)'입니다. 참고로 제주에서는 겨울철 방안의 천장이나 벽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도 '우풍'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풍'은 표준어의 '웃바람'에 해당합니다.

## 46

**문** 〈우리말샘〉에서 '머리'의 제주어로 '머력'이란 어휘가 있던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대, 남, 도내)

**답** '머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주어에서는 〈우리말샘〉에 나온 '머리[006]'와 같은 의미로 '사물의 앞이나 위'를 가리키는 말로 '머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47

**문** 돈을 주웠거나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앗싸!'와 같은 제주어 감탄사가 있을까요?(○○○, 30대, 여, 도내)

**답**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아이고, 돈 줏엇저.' 혹은 '아이고, 수망일엇저.'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아싸/앗싸'에 대응하는 적당한 감탄사는 없어 보입니다.

## 48

**문**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를 제주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합니다.(○○○, 20대, 남, 도내)

**답**

| 표준어 | 제주어 |
|---|---|
| 쥐띠 | 중이헤치/쥉이헤치/<br>쥥이헤치/쥐헤치 |
| 소띠 | 쉐헤치 |
| 호랑이띠 | 호렝이헤치/범헤치 |
| 토끼띠 | 톳헤치/퉤끼헤치/토끼헤치 |
| 용띠 | 용헤치/미르헤치/미리헤치 |
| 뱀띠 | 베염헤치 |
| 말띠 | 물헤치 |
| 양띠 | 양헤치/염쉐헤치/염헤치/<br>염소헤치 |
| 원숭이띠 | 납띠/납헤치/원셍이헤치/<br>즌나비띠 |
| 닭띠 | 독헤치 |
| 개띠 | 개헤치 |
| 돼지띠 | 도새기헤치/돗헤치 |

## 49

**문** 다음 어휘들을 제주어로 알려 주세요.(○○○, 20대, 남, 도내)

**답**

| 표준어 | 제주어 |
|---|---|
| 이빨 | 늬빨 |
| 가슴 | 가심/가슴 |
| 싸우다 | 쌉다/싸우다 |
| 가르다(갈라지다) | 갈르다/가르다 |
| 헤엄치다 | 휘다/헤염치다/히엄치다/<br>히염치다/힘치다 |
| 서다 | 사다/스다 |
| 문지르다 | 문지르다 |
| 주다 | 주다 |
| 끌다 | 끗다/끌다 |
| 밀다 | 밀다/밀리다 |
| 묶다 | 무끄다 |
| 꿰매다 | 꼬메다/꿰메다 |
| 세다(숫자를 세다) | 시다/세다(숫자를 세다) |
| 뜨다 | 트다/뜨다 |
| 흐르다 | 흘르다/흐르다 |
| 붓다 | (액체 등을) 부으다/부수다/비우다/빕다<br>(살가죽이 부풀어 오르다)붓다 |
| 놀다 | 놀다 |
| 소금 | 소곰 |
| 안개 | 우남/으남/안개 |
| 하늘 | 하늘 |
| 춥다 | 얼다/춥다 |

| 표준어 | 제주어 |
|---|---|
| 썩다 | 석다/썩다 |
| 더러운 | 데러운/덜러운/더러운 |
| 바른 | ᄂᆞ단/발른/바른 |
| 멀다 | 멀다 |
| 사슴 | 각록/사슴 |
| 손가락 | 손고락/손가락 |
| 바늘 | 바농/바늘 |

## 50

**문** '입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도내)

**답** '이우다' 또는 '-마씀'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종이우다.' 또는 '이거 종이마씀.'이라고 하면 표준어로는 '이거 종이입니다.'가 됩니다. 또한 '-마씀' 자리에 '-마씨', '-마씸'을 사용해도 됩니다.

## 제주어를 표준어로

**1**

**문** '구제기닥살'을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알 수 없음)

**답** '구제기'는 '소라', '닥살'은 '껍데기'를 뜻하기 때문에 표준어로 '소라딱지'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구젱기닥살', '구젱기닥물', '구젱이닥살' 또는 줄여서 '닥살', '딱살'이라고도 합니다.

**2**

**문** 제주어 '돌랑돌랑'은 표준어로 '두근두근'이 맞나요?(○○○, 30대, 여, 도내)

**답** 제주어 '둘랑둘랑'은 표준어 '달랑달랑'에 해당합니다. 달리 '틀랑틀랑'으로도 표현합니다. 표준어 '달랑달랑'은 ① 작은 방울이 흔들리는 소리나 모양 ② 가볍게 행동하는 모양 ③ 겁이 나서 가슴이 울리는 모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가운데 ③ 의 의미가 '두근두근'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참고로 제주어에 '탕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또한 표준어 '두근두근'에 해당합니다.

**3**

**문** '험벅눈'을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양○○, 70대, 남, 도내)

**답** '험벅눈'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함박눈'입니다.

## 4

**문** '헷잖아이', '경헤부난이', '괜찮아이' 할 때 '이'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이'는 다시 물을 때, 확인하고자 할 때, 강조할 때 사용되는 말로 표준어로 나타낼 적당한 말은 없습니다.

## 5

**문** 제주어 '좀'을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좀'은 '조금'의 준말로 표준어로도 '좀'입니다. 간혹 '쫌'처럼 된소리로 발음하기는 합니다.

## 6

**문** '잇', '익' 등의 감탄사도 제주어인가요? 제주어라면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잇', '익'과 같은 의미, 다른 형태로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소리를 문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감탄사를 제주에서만 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잇', '익' 등이 감탄사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개인어로 보입니다. '이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제주어에서 사용하는 감탄사의 예

| 제주어 | 표준어 |
|---|---|
| 게게 | 그래그래 |

| 제주어 | 표준어 |
|---|---|
| 기여 | 그래 |
| ᄀᆞ만잇자 | 가만있자 |
| 나야더리/네야다리 | 제기랄 |
| 마 | 옜다 |
| 말다 | 아니 |
| 메/메께/메께라 | 어머 |
| 메록 | 메롱 |
| 봅서 | 여보세요 |
| 아가기여 | 아야 |
| 아따/하따 | 아따 |
| 아마넉들라 | 쒜쒜 |
| 어취나 | 개치네쒜 |
| 잘콴다리 | 잘코사니 |
| 허쑹언 | 예끼 |

## 7

**문** 제주어 '막'은 표준어 '막'과 같은가요?(○○○, 40대, 여, 도내)

**답** 표준어 '막'과 같은 의미인 '바로 지금', '바로 그때', '마구', '함부로' 등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매우'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용례에 따라서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을 듯합니다.

## 8

**문** '딱'이 제주어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문맥이 제시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주어를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주에서도 표준어와 같은 형태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표준어와 의미와 형태가 같지만 제주사람들이 쓰니까 제주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딱'은 표준어이면서 제주어입니다. '딱'의 의미로 제주에서는 '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딱 맞다'를 말하는 상황에서 '똑 맞다'처럼 말합니다.

## 9

**문** '똘르다'는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똘르다'는 '뜨다', '따르다[隨, 注]', '돌리다'에 대응하는 제주어입니다. 물이나 국물 따위를 조심스럽게 덜어내다의 의미일 때는 '뜨다', 같이 가다의 의미로는 '따르다[隨]', 액체를 조금씩 흐르게 하다의 의미로는 '따르다[注]'가 있으며, '한패에 넣어 주지 아니하다', '아무렇게나 취급하다' 등의 의미로는 '돌리다'에 해당합니다.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10

**문** 제주어 '쫄이다'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쫄이다'는 '음식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이 적어지게 하다'는 표준어 '졸이다'를 강조하여 된소리로 발음한 것이거나 '바싹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의 뜻인 '조리다'를 강조하여 된소리로

발음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휘 하나만으로는 그 뜻을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 11

**문** 제주어 '요쏠'을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야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쏠'은 '약간', '조금'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 12

**문** 'ᄇᆞ름도레기'는 표준어로 무엇인가요?(김○○, 50대, 남, 도내)

**답** '바람개비'를 제주에서는 'ᄇᆞ름도레기'라고 합니다.

## 13

**문** '물에서 보민 진시가 빨강하게 앉안.'이라 할 때 '진시'는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진시'의 표준어는 '진딧물'입니다. '진쉬'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문에서 '물'에 '빨갛게' 앉은 것을 말한다면 '진딧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진딧물'은 개미와 공생하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곤충이기 때문에 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14

**문** 제주어 녹음 자료에서 '가: 걘는 잘 됐는데 나는 안 됐어.', '나: 지를.'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를'이 혹시 비속어 '지랄'인가

요?(○○○, 40대, 여, 도내)

**답** '지랄'을 '지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지를'을 쓸 수는 있으나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성이 있다면 앞뒤 상황을 고려해 다시 들어 보세요.

## 15

**문** '차 끝에 사람들이 과랑과랑 탔거든.'이라고 할 때 '과랑과랑'이 '많이'가 맞나요?(○○○, 40대, 여, 도내)

**답** '과랑과랑'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모양이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표준어의 '쨍쨍'에 해당하는 어휘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많이', '가득가득'의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문장에서 '과랑과랑'은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 16

**문** '용머리 앞에 오꼬쟁이 조침앉아근에.'라고 할 때 '조침'이 '소심'이라는 의미가 맞나요?(○○○, 40대, 여, 도내)

**답** '조침앉다'는 '엉덩이를 들고 두 다리를 구부려 세워서 발로 디디어 앉다'라는 뜻입니다. 밭에서 김매는 자세가 곧 '조침앉다'로 보면 됩니다. '조침'을 '소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오꼬쟁이'는 '오고생이'를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 17

**문** '돈이 와랑와랑 있어도'라고 할 때 '와랑와랑'이 '많이'가 맞나요?(○○○, 40대, 여, 도내)

**답** '와랑와랑'은 ①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 ② 사람이 힘차게 가거나 달리는 모양 ③ 기운이 일어나는 모양 등의 뜻이 있습니다. 문맥상 돈이 많이 있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표준어 의태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18

**문** '오게, 이젠 그렇게는 안 되지.'라고 할 때 '오게'는 '오, 그래'가 맞나요?(○○○, 40대, 여, 도내)

**답** '오게'는 '오, 그래'보다는 '그래'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주어에서 '오' 혹은 'ᄋᆞ'는 '옳지', '오냐'의 뜻으로 쓰입니다. 표준어의 감탄사 '어'가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내는 소리인데 이것이 제주에서 '오' 혹은 'ᄋᆞ'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게'는 여기에 '게'가 결합된 형태로 '게'를 따로 표준어 대역하지 않습니다.

## 19

**문** '아코, 너가 더 야무져.'라고 할 때 '아코'는 '아니'가 맞나요?(○○○, 40대, 여, 도내)

**답** '아코'가 '아니'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인 '아이고'를 '아이코'로 발음하고 이것을 '아코'로 줄여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20

**문** '난 여기서만 차를 돌돌돌거리면서 다녀 부난.'이라고 할 때 '돌돌돌'이 표준어 '덜덜덜' 맞나요?(○○○, 40대, 여, 도내)

**답** '돌돌'은 표준어로 '작고 둥근 물건이 가볍고 빠르게 구르거나 돌아가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돌돌돌'은 작은 차가, '덜덜덜'은 조금 큰 차가 다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돌돌돌'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21

**문** '저 차는 왜 와랑와랑 소리를 내는 거야?'라고 할 때 '와랑와랑'이 '시끄럽게'가 맞나요?(○○○, 40대, 여, 도내)

**답** 질문하신 내용에서의 '와랑와랑'은 '물체나 우레 따위가 잇따라 요란스럽게 울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준어 '와릉와릉'의 변음인 듯합니다. '시끄럽게'가 아닌 '와릉와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부릉부릉'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 '와랑와랑'은 ①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 ② 사람이 힘차게 가거나 달리는 모양 ③ 기운이 일어나는 모양 등을 나타내는 제주어입니다.

## 22

**문** '솔잎을 긁으러 가. 삭다게도 하러 가곡.'이라 할 때 '삭다게'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문맥으로 볼 때 '삭다게'가 아니라 '삭다리'인 것 같습니다. '삭다리'는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나뭇가지'를 말하는데, 표준어 '삭정이'에 해당합니다.

## 23

**문** '불을 짇을거 헤낭은에'라고 할 때 '짇을거'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짇을거' 혹은 '짇을커'는 표준어로 '땔감'을 말합니다. '짇을커'의 '짇-'은 옛말 '딛다[燃]'의 어간 '딛-'에서 온 말로, 'ㄷ'이 구개음화한 형태에 사물을 뜻하는 '거'가 연결되어 '짇을거' 또는 '짇을커'가 되고, 그 결과 '땔감'의 뜻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 24

**문** '주젱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어릴 때 그추룩 저냥해서.'라고 할 때 '주젱기'는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주젱기'는 표준어 '주저리'를 말합니다. '주젱기'는 달리 '주제기', '주젱이', '주지'라고도 합니다. 곡식 등을 쌓은 가리 위에 이엉 따위를 두르고 그 위에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어씌우는 물건을 말합니다.

## 25

**문** '도레기'는 '팽이'만을 가리키는 건가요?(김○○, 50대, 남, 도내)

**답** '도레기'는 '돌다'에서 온 말입니다. 돌아가는 물건인 '바퀴'나

'팽이'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물건에 두루 쓰입니다.

## 26

**문** 제주어 '도깨'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도깨'의 표준어는 '도리깨'입니다. '도리깨'는 곡식의 낟알을 떠는 데 쓰는 재래식 농기구입니다.

## 27

**문** '마농지'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50대, 남, 도내)

**답** '마농지'의 표준어는 '마늘장아찌'입니다. '마농지'는 달리 '마농지시', '마농지이'라고도 합니다.

## 28

**문** '감저밥'이 무슨 밥인가요?(박○○, 50대, 남, 도내)

**답** '감저밥'은 고구마를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하는데, 표준어 '고구마밥'에 해당합니다.

## 29

**문** '감저'가 '고구마', '지실'이 '감자'가 맞나요?(홍○○, 30대, 여, 도외)

**답** '고구마'를 제주에서는 '감저', '감제', '감ᄌᆞ'라 하고, '감자'를 '지슬', '지실'이라고 합니다. 이들 어휘들은 표준어와 방언형이 서로 교차되어서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 감저 〈식물〉:** 고구마. 메꽃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달리 '감제', '감ᄌᆞ'라고도 함.

**지슬 〈식물〉:** 감자. 가짓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달리 '지실'이라고도 함.

## 30

**문** '베체기'는 '질경이'의 제주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수왈'이라고도 하나요?(채○○, 50대, 남, 도내)

**답** '베체기'는 식물인 '질경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패류인 '거북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 베체기 〈식물〉:** 질경이. 질경잇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달리 '베차기'라고도 함.

**베체기 〈동물〉:** 거북손. 거북손과에 딸린 갑각류. 달리 '대수왈', '대오살', '대우살'이라고도 함.

## 31

**문** 제주어 '부루'가 표준어로 '상추'가 맞나요?(홍○○, 30대, 여, 도외)

**답** 제주어 '부루'는 '상추'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종 상추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상추와 품종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상추를 '부루'라고 합니다.

※ '상추'는 한자어 '생채(生菜)'에서 온 말로, 《동문유해》에는 '숭치'라 하고 있습니다. 이 '숭치'가 '상추'가 된 것입니다. 한편 '부루'는 한자어 '와(萵)'나 한자어 '거(苣)'를 '부루 와' 또는 '부루 거'로 읽어 '부루'가 고유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32

**문** '말젯-', '지집아이'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30대, 남, 도외(제주 출신))

**답** '말젯-'은 '셋째의'라는 뜻이고, 지집아이는 '계집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말젯-'은 한자어 '말(末)'에서 온 접두사로, 대체적으로 '넷 가운데 셋째의' 뜻입니다.

## 33

**문** '섬찌근ᄒᆞ다'는 '무섭다', '지긋지긋하다' 중 무엇에 해당하는 말인가요?(○○○, 40대, 남, 도외)

**답** '섬찌근ᄒᆞ다'는 무섭고 꺼림칙한 느낌이 남아 있다의 의미를 가진 표준어 '섬쩍지근하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무섭다'의 의미지만 상황에 따라 '지긋지긋하다'로 둘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4

**문** '데싸지다'가 '죽다'의 의미로 쓰이나요?(○○○, 40대, 남, 도외)

**답** '데싸지다' 혹은 '뒈싸지다'는 '뒤로 자빠지다, 뒤집어지다'의 뜻으로 '죽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달리 '뒤여지다', '널러지다' 라고도 합니다.

## 35

**문** '씨발놈'과 같은 욕으로 '씨붕놈'을 제주어에서도 쓰나요?(○○○, 40대, 남, 도외)

**답** 욕으로 '씨붕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주에서도 '씨발놈'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몽근놈'이라는 욕도 사용하는데 이때

'몽글다'는 다 닳아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36

**문** '똥소레기'가 독수리인가요?(○○○, 30대, 남, 도외(제주 출신))

**답** '똥소레기'는 '솔개'를 말합니다. '똥소로기', '똥수레기', '소레기', '소로기'라고도 합니다.

## 37

**문** '제주바투리'에서 '바투리'는 무슨 말인가요?(○○○, 여, 알 수 없음)

**답** '바투리'는 사물의 현상이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의 '바탕'을 말하는 제주어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의 바탕, 근본'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하여 센터 기관지 이름을 '제주바투리'라 정하였습니다.

## 38

**문** 제주어 '무뚱'은 무엇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무뚱'은 '집채에 딸린 문 바깥 처마 밑 근처'를 말합니다. '무뚱'은 '문 근처'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대응하는 표준어는 없지만 '문밖' 또는 '문어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39

**문** '소드레'가 제주어인가요?(○○○, 30대, 여, 도내)

**답** '소드레'는 '소도리'에 해당하는 어휘가 아닌가 합니다. '소도리'

는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을,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좋지 않게 전하여 이간질하는 짓'을 가리키는 표준어 '말전주'에 해당합니다.

## 40

**문** '구젱기'가 표준어로 무엇인가요?(○○○, 30대, 남, 도내)

**답** '구젱기'는 '소라'를 말합니다. 달리 '구제기', '구젱이'라고도 합니다.

## 41

**문** 유튜브(youtube)에 제주어 동요 '보말'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 '심어 놩 뱅글락 뱅글락'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고○○, 남, 알 수 없음)

**답** '심어 놩'은 표준어로 대역하면 '잡아 놔서'가 됩니다. '심다'는 표준어 '잡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뱅글락'은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노래 가사를 유추해 볼 때 '뱅글뱅글' 혹은 '동글동글' 정도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 42

**문** '고질멩이'가 어떤 물고기인가요?(○○○, 20대, 남, 도외)

**답** '고질멩이'는 학꽁칫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합니다. '고즐멩이'라고도 합니다.

## 43

**문** '이어도 사나'의 한 구절입니다. '구젱길 딸까?'에서 '구젱길'은 무슨 뜻인가요?(김○○, 50대, 여, 도외)

**답** '구젱기'는 '소라'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구제기', '구젱이' 또는 '고동'이라고도 합니다. '구젱길'은 '구젱기+ㄹ' 구성으로 목적격 조사 '을/를'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 44

**문** 다음의 네 단어를 표준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뜻도 알려주세요.(○○○, 40대, 여, 도외)

① 문착ᄒᆞ다 ② 째끌락ᄒᆞ다 ③ 흥글흥글 ④ ᄒᆞᆺ쏠 두리다

**답** ① '문착ᄒᆞ다'는 물건을 싹둑 자르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슷한 발음의 '문짝ᄒᆞ다'는 '매끈하다', '뭉뚝하다'의 뜻입니다. ② 쪼끄마하다, 조그맣다 ③ 흔들흔들 ④ 조금 어리다, 조금 어리석다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45

**답** '허끄다'가 '섞다'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못 찾고 '헤매다'는 뜻으로도 쓰이나요?(○○○, 40대, 여, 도내)

**답** '허끄다'는 그 의미에 따라 ① 섞다 ② 흩다 ③ 흩뜨리다 ④ 언동을 조신하게 하지 못하고 된 말 안 된 말을 늘어놓거나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다 등으로 쓰입니다. ④의 의미로 쓰인다면 '헤

매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 46

**문** 제주흑돼지를 활용한 육포의 상호로 사용할 제주어 단어를 확인해 주세요.(고○○, 남, 알 수 없음)

**답**

| 제주어 | 표준어 |
|---|---|
| '베지그랑'-오리지널 | '베지그랑'은 '고기 따위가 깊은 맛이 있다, 구미가 당긴다'는 의미로 쓰이는 '베지근허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베지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돌코롬'-감귤청 | '돌코롬허다'는 '달콤하다' 또는 '감칠맛이 있게 달다'라는 의미이며 '돌크름허다'라고도 합니다. 표기를 '돌코롬'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 '맵지롱'-청양고추 맛 | '맵지롱허다'은 '메옴하다'는 뜻으로 '혀가 조금 알알할 정도로 맵다'는 뜻입니다. '매우롱허다', '맵지랑허다', '맵지근허다'라고도 합니다. |

| 제주어 | 표준어 |
| --- | --- |
| ‘코소롱’–견과류 | ‘코소롱허다’는 ‘고소무레하다’, ‘고소하다’는 뜻으로 ‘코시롱허다’라고도 합니다. ‘코소롱’도 괜찮고 ‘코시롱’도 좋을 듯합니다. |
| ‘알리다’–마늘 | ‘알리다’는 ‘아리다’ 즉 ‘상처나 살갗 따위가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생마늘의 맛은 맞지만 상품명으로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

## 47

**문** ‘부불ᄌᆞ손 더 아깝나’라고 나와 있는 자료를 봤는데 이때 ‘부불’이 무슨 뜻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두 불 ᄌᆞ손 더 아깝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불’은 ‘두 불’의 오타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자손이 더 귀엽다’는 뜻으로 손주가 더 귀엽다는 뜻입니다.

## 48

**문** 《2020 제주어 교육 자료(중등)》 책에 ‘세미떡’이 ’만두’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40대, 여, 도내)

**답** ‘세미떡’은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

어서 찐 떡'으로 표준어 '만두'와는 다릅니다.

##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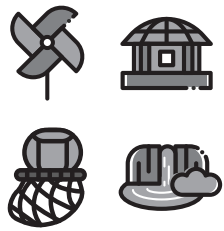
**문** '-의 경우', '-한 경우'의 '경우'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 20대, 남, 도내)

**답** '학생의 경우', '먹은 경우'처럼 쓸 때 '겡우', '정우'처럼 발음될 수는 있습니다만, '경우'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같은 형태로 쓰입니다.

ᄇᆞ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 2. 구와 문장



## 표준어를 제주어로

**1**

**문** '누구나 일을 해내기 전까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20대, 여, 알 수 없음)

**답** '누게나 일을 헤내기 전ᄁᆞ장은 문딱 불가능헌 거우다.' 혹은 '누게나 일을 허기 전인 모든 게 불가능헌 거마씸.'이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헤내기' 대신 'ᄆᆞ치기(마치기)'라고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문**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남, 도외)

**답** '춪아와 줭 고맙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문**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따뜻하게.'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신○○, 20대, 여, 알 수 없음)

**답** '몸은 멀리 이서도(잇어도) ᄆᆞ심은 가차이 뜨뜻ᄒᆞ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문** '힘들고 답답한 시기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힘내 보아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알 수 없음)

**답** '심들곡 답답흔 시기주마는 희망을 일러불지 말앙(희망을 놓지 말앙) 심내게마씸(심내 보게마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

**문** '서로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내 보아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알 수 없음)

**답** '서로 격려ᄒᆞ멍 오널을 이겨내 보게마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6

**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남, 도외)

**답** '방문헤 줭(줏아 줭) 고맙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7

**문** '30초 이상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대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알 수 없음)

**답** '30초 이상 손 시치는 게(것가) 젤(질로) 중요허덴마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8

**문** '감기 걸리지 않게 몸조심하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

요?(○○○, 20대, 여, 도외)

**답** '고뿔 걸리지 아녀게 몸조심헙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9

**문** '올 한 해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도외)

**답** '올 흔 해도 문딱 속앗수다(속아수다).', '올히도 문딱(다덜) 속앗수다(속아수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0

**문** '날이 추워질수록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합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도외)

**답** '날이 추워질수록 뜨뜻허게 입엉 뎅겨사 헙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1

**문** '안녕, 제주 친구들'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남, 도외)

**답** '안녕, 제주 벗덜'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2

**문** '안녕하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남, 도외)

**답** '안녕허우꽈?' 또는 '안녕허시우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3

**문**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잘되시길 빌어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정○○, 30대, 여, 도외)

**답** '올 흔 해 모든 일덜이 잘뒈길 빌엄수다.' 또는 '올히 허시는 일덜 문딱 잘뒈길 빌엄수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올 한 해 모든 일들이'를 '올해 하시는 일들 모두'로 수정해서 제주어로 바꿨습니다.

## 14

**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정○○, 30대, 여, 도외)

**답** '새헤 복 하영 받읍서예(받으십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읍서예'에서 '예'는 생략해도 됩니다.

## 15

**문**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정○○, 30대, 여, 도외)

**답** '뚜뜻헌 멩질 보냅서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냅서예'에서 '예'는 생략해도 됩니다.

## 16

**문**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스스로를 존경허민 뚜난 사름도 이녁을 존경헐 거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녁'은 상대편을 높여 이를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17

**문** '당신의 하루를 응원해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당신의 ᄒᆞ루를 응원헴수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8

**문** '종잡을 수 없는 요즘 날씨, 출퇴근길 모두 조심하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종잡을 수 엇인(요벤닥허는) 요즘 날씨, 출퇴근질 문딱 조심헙서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벤닥허다'는 '심하게 변덕을 부리다'라는 뜻을 가진 제주어로 '종잡을 수 엇인'보다 더욱 맛깔나는 표현일 듯합니다. '조심헙서양'에서 '양'은 생략해도 됩니다.

## 19

**문** '제주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제주는 춤말 곱닥헌 곳이우다(고단이우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

**문** '바닷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바당소곱인(바당알엔) 무신거가 살암신고예(살암시코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마지막에 붙는 '예'와 '양'은 생략해도 됩니다.

## 21

**문** '밥은 꼭 챙겨 드세요.'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밥은 똑 챙경 먹읍서예(드십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읍서예'에서 '예'는 생략해도 됩니다.

## 22

**문** '나무야, 지금처럼만 자라다오.'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낭아, 지금추룩만 커도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3

**문** '눈이 녹으면 봄이 오듯 이 또한 지나가겠죠?'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눈이 녹으민 봄이 오듯기(오는 거추룩) 이 또한 지나갈 테주예(넘어갈 텝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4

**문** '영원히 기억되고,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현○○, 20대, 여, 도내)

**답** '영원히 기억뒈곡, 진정흔 평화가 깃들도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5

**문** '매일 반복되는 하루지만 조금은 특별한 하루였기를 바라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매날 반복뒈는 ᄒᆞ루주만 ᄒᆞ꼼은 특벨헌 ᄒᆞ루랏기를(ᄒᆞ루라시믄 헹) 바렘수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6

**문** '당신의 오늘이, 내일은 더 빛이 나기를.'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당신의(이녁의) 오널이, 닐은 더 빗이 나기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빛이[비치]'라고 발음하지 않고 '빗이[비시]'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빛'이라고 쓰지 않고 '빗'이라고 씁니다.

## 27

**문** '포기하지 않는다면 행운이 널 찾아낼 거야.'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외)

**답** '포기허지 아녀민 행운이 늘 춧아낼 거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8

**문** '돈으로 우정을 살 수는 없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외)

**답** '돈으로 우정을 살 순 엇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9

**문** '많이들 신청하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내)

**답** '하영덜 신청헙서양(신청허십서).'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헙서양'에서 '양'은 생략해도 됩니다.

## 30

**문** '오르면 오를수록 파란 하늘과 맞닿는구나.'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외)

**답** '올르민 올를수록 파랑헌 하늘광 맞닿암신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1

**문** '오늘도 내일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외)

**답** '오널도 널도 존(좋은) 일만 ᄀᆞ득허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2

**문** '천천히 보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백○○, 20대, 여, 도내)

**답** '천천이(놀멍놀멍) 봅서예(보십서).'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봅서예'에서 '예'는 생략해도 됩니다.

## 33

**문** '걱정 마세요, 그렇게 큰일은 아니니까.'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외)

**답** '걱정 맙서, 경 큰일은 아니난.'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4

**문** '아름다운 풍경 속 숨겨진 역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현○○, 20대, 여, 도내)

**답** '아름다운 풍경 소곱에 곱져진 역사의 아픔을 혼디 기억헤 줍서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줍서양'에서 '양'은 생략해도 됩니다.

## 35

**문** '따뜻한 계절, 따뜻한 하루.'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외)

**답** '뚜뜻헌 계절, 뚜뜻헌 ᄒᆞ루.'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6

**문** '꽃 피는 봄이 오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으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꼿(고장) 피는 봄이 오민 어떵헌 ᄒᆞ루를 보내고정 혜마씨(허우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7

**문** '제주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마음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현○○, 20대, 여, 도내)

**답** '제주의 아픈 역사를 잊어불지 아녕 ᄆᆞ심 소곱 지피 새기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8

**문** '제주에서 자랐다/자랐어요.', '제주가 키웠다/키웠어요.'를 제주어로 하면 무엇인가요?(○○○, 30대, 여, 도외)

**답** '제주에서 컷저(컨마씸).', '제주가 키왓저(키완마씸).'로 말할 수 있습니다.

## 39

**문** '많은 희생'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도내)

**답** '만헌(한/한한헌) 희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0

**문** 관덕정의 의미가 '평소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닦는다.'라고 하는데 제주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도내(이주민))

**답** '평소 ᄆᆞ심을 발르게(굳작허게) 허고 훌륭헌 덕을 다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1

**문** 중앙로 상점가에 쓸 행사 슬로건 '함께해요! 중앙로 상점가', '이겨내요! 코로나'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남, 알 수 없음)

**답** 'ᄒᆞᆫ디 허게마씸! 중앙로 상점가', '이겨내게마씸! 코로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 42

**문** '천천히 걸으며 따스한 봄 향기를 느껴 보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현○○, 20대, 여, 도내)

**답** '천천히(놀멍놀멍/놀멍쉬멍) 걸으멍 ᄃᆞᆺᄃᆞᆺᄒᆞᆫ 봄 내음살을 느껴 봅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3

**문** '말 보러 가자고 하네.'를 제주어로 뭐라고 바꿀 수 있나요? '보러 가겐.'으로 끝내도 되나요?(○○○, 30대, 여, 도외(제주 출신))

**답** 'ᄆᆞᆯ 보레 가겐 헴신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러 가겐'은

표준어로 '보러 가자고'의 의미이며, 구어에서는 '하다' 동사를 생략해서 '보레 가겐.'처럼 쓸 수 있습니다.

## 44

**문** '여유로움을 느끼기에 더 없이 좋은 4월.'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현○○, 20대, 여, 도내)

**답** '여유로움을 느끼기에 더 엇이 좋은(존) 4월.'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5

**문** '느긋하게 걷기 좋은'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현○○, 20대, 여, 도내)

**답** '느긋허게(놀멍놀멍/놀멍쉬멍) 걷기 좋은(존)'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6

**문** '제주에 가면 꼭 들러야 할 곳이란 말이지.'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60대, 남, 도외)

**답** '제주에 가민 똑 들러사 헐 디라마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7

**문**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버리자.', '힘들었을 텐

데 마음을 풀어 보자.'라는 의미의 문장을 제주어로 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춤광 놀래 불르멍 스트레스 풀어 불게.', '심들어실 건디 ᄆᆞ심을 풀어 보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 48

**문** 다음을 제주어로 알려 주세요.(○○○, 60대, 여, 도내)

① 어느 날 밤

② 다음날 아침

③ 계획을 말하다

④ 예쁜 숲

⑤ 향긋한 풀냄새

⑥ 꽃향기를 맡는 달콤한 꿈

⑦ 산책하다

**답** ① 요ᄒᆞ루기 밤

② 뒷녁날 아척(아적/아침)

③ 계획을 ᄀᆞᆫ다, 여산을 ᄀᆞᆫ다

④ 곱닥헌 고지(곶)

⑤ 상긋헌 풀 내음살

⑥ 고장 내음살 마트는 둘콤헌 꿈

⑦ 산책허다

## 49

**문** '우리 딸 피곤해서 어쩌니. 얼른 쉬어라.'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강○○, 30대, 여, 도내)

**답** '우리 뚤 피곤헹 어떵허코. 혼저 쉬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0

**문** '우리 사위 이것 좀 더 먹고 힘내게.'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강○○, 30대, 여, 도내)

**답** '우리 사우 이거 ᄒᆞ꼼 더 먹엉 심내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1

**문** '너희들 행복이 내 행복'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강○○, 30대, 여, 도내)

**답** '느네덜 행복이 나 행복'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2

**문** '고기는 상추에 싸 먹어야 맛있지.'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외)

**답** '궤기는 부루에 쌍 먹어사 맛싯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3

**문**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너는?'을 제주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홍○○, 60대, 남, 도내)

**답** '난 가수가 뒈구정 ᄒᆞ여, 는?'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54

**문** '어떻게 내일은 집에 갈 수 있을까?'를 제주어로 고쳐 주세요.(○○○, 40대, 여, 도외)

**답** '어떵 닐은 집이 가지카(가질 건가)?'라고 하면 됩니다.

## 55

**문** '아이들이 있는 숲으로 가자.'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김○○, 50대, 남, 도내)

**답** '아이덜 이신(신) 곶더레 글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56

**문** '물론 설비 개선 등 적극적인 방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해.'라는 문장을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고○○, 30대, 여, 도내)

**답** '물론 설비 개선 등 적극적인 방법이 ᄆᆞ녀(문제) 고려뒈어사 허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7

**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대요.'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요?(홍○○, 60대, 남, 도내)

**답** '사름덜이 엄청 하영 죽엇덴마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58

**문** '빨갱이 때문이라는디.'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홍○○, 60대, 남, 도내)

**답** '빨갱이 따문이렌 ᄒᆞ는디.'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 59

**문** '떠오르는 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 봅시다.'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10대, 여, 도내)

**답** '터오는 해추룩 뜨뜻헌 ᄆᆞ심으로 ᄒᆞᆫ 해를 시작헤 보게마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60

**문** 다음의 '오늘부터 영원히 두 사람은 '연리지'와 '비익조'처럼 늘 함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장을 제주어로 알려 주세요.(강○○, 30대, 여, 도내)

**답** '오널부터 영원히 두 사름은 '연리지'영 '비익조'추룩 늘(매날매날) ᄒᆞᆫ디허곡, 행복허기를 진심으로 기원헴수다(빌엄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61

**문** '재주가 많다'를 제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30대, 여, 도외)

**답** '재주가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62

**문** '남은 여정 편안히 쉬다 가세요.', '만족스런 여행 되십시오.', '편안히 쉬다 만족스럽게 돌아 가십시오.' 등을 제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30대, 남, 알 수 없음)

**답** '남은 여정 펜안히 쉬당 갑서.', '코삿헌 여행 뒈십서양.' 또는 '펜안히 쉬당 코삿허게 돌아갑서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63

**문** '별빛 아래 바닷소리 들으면서'를 제주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대, 남, 알수 없음)

**답** 벨빗 아래 바당소리(절소리) 들으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소리'는 파도 소리를 말하는 제주어입니다.

## 64

**문** '내가 왜 말 많은 걸 싫어해, 아빠가 계셔서 조금 조심스러울 뿐이지.' 제주어로 번역 부탁드립니다.(○○○, 30대, 남, 도내)

**답** '나가 무사 말 한 걸 싫어허느니, 아부지가 셔 부난 ᄒᆞ꼼 조심스러울 뿐이주(조심허는 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65

**문**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궤깃반 맛

나게 드시고 더운 여름 잘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문장을 제주어로 알려 주세요.(강○○, 30대, 여, 도내)

**답** '이 자리에 참석허여 주셍 진심으로 고맙고 오널 궤깃반 맛나게 드시곡 더운 여름 잘 나시길 기원헴수다.' 또는 '이디 와 주셍 춤말로 고맙고, 오널 궤깃반 맛좋게 하영 드시곡, 더운 여름 건강허게 잘 보내십서.' 정도로 바꾸면 될 듯합니다.

## 66

**문** '맛있게 드세요.'를 제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40대, 남, 도내)

**답** '맛 좋게 먹읍서.' 또는 '맛싯게 드십서.'라고 합니다.

## 67

**문** '빨리빨리 오세요.'를 제주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30대, 여, 도외)

**답** '빨리빨리'를 뜻하는 제주어 '재기재기'를 사용해서 '재기재기 옵서(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68

**문** '-하기 때문이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20대, 남, 도내)

**답** '-허는 따문이다', '-허기 따문이다'라고 합니다.

## 69

**문** '-하고 있다'는 제주어로 '-ᄒᆞ염다'인데, '-하고 있었다'는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남, 도내)

**답** 과거 진행의 문형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ᄒᆞ염섯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ᄒᆞ염십디다', 'ᄒᆞ염선게', 'ᄒᆞ염서라'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70

**문** '천천히 걸을 때 제주의 진짜 매력이 보인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현○○, 20대, 여, 도내)

**답** '천천이(놀멍놀멍/놀멍쉬멍) 걸을 때 제주의 진짜 매력을 베려집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71

**문** 전단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문구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라고 제주어로 말하고 싶은데 적당한 표현이 있을까요?(김○○, 30대, 여, 도내)

**답** '이걸랑 똑 멩심헙서.'는 어떨까요? 문구에 사용될 비슷한 의미로 '명심하다'의 제주어 '멩심ᄒᆞ다'가 있습니다.

## 72

**문** 아래 문장을 제주어로 알려 주세요.(정○○, 40대, 여, 도내)

① 인권차별 어색함은 그만, 인권존중 어울림은 시작!

② 인권차별을 하지 마세요, 인권존중만 해도 모자랍니다.

③ 인권차별을 하는 순간, 작은 인권존중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④ 인권차별 마음속에서 버리세요, 인권존중 가슴속에서 심으세요.

⑤ 인권차별이라는 틀을 깨면 인권존중이 보입니다.

**답** ① 인권차벨 어색험은 그만, 인권존중 어울림은 시작!

② 인권차벨 허지 맙서, 인권존중만 혜도 모지렙니다./인권차벨 허지 말게마씨, 인권존중만 혜도 모지레마씨.

③ 인권차벨 허는 순간, 족은 인권존중도 크지 못헙니다./인권차벨 허당 보민, 족은 인권존중도 크질 못허여마씨.

④ 인권차벨 ᄆᆞ심소곱이서 데껴 붑서, 인권존중 가심소곱이 싱급서./인권차벨 ᄆᆞ심소곱이서 데껴 불곡, 인권존중 가심소곱 드레 싱거 봅서.

⑤ 인권차벨이렌 허는 틀을 벌르민 인권존중이 붸려집니다./인권차벨이렌 허는 클을 벌르민 인권존중을 붸려질 거우다.

## 73

**문** 초등학교 계단에 제주어 문장을 쓰려고 합니다.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30대, 여, 도내)

① 하늘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② 너의 꿈은 꼭 이루어질 거야!

③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힘내.

④ 좋은 말을 하면 너한테도 좋은 말이 와.

⑤ 꿈을 이루는 힘이 사람 몸 속에 있다.

⑥ 사람이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

⑦ 진정한 친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⑧ 우리의 꿈은 우리의 노력과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에서 부터 시작한다.

⑨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⑩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⑪ 성공은 벗을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⑫ 지혜 없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로 쓰러진다.

**답** ① 하늘 흔번 베려봐, 기분이 좋아질 거라.

② 느네(느) 꿈은 똑 이루어질 거여!

③ 포기허지 말라! 느넨(는) 헤지메! 심내.

④ 좋은 말 허민 느네(느)신디도 좋은 말이 오메.

⑤ 꿈을 이루는 심은 사름 몸 소곱에 이서(잇어).

⑥ 사름은 누게나 후회 엇인 삶을 살젠 헌다.

⑦ 진정헌 벗은 가장 소중헌 보물이여.

⑧ 우리 꿈은 우리 노력이영 생각, 게고 긍정적인 ᄆᆞ심에서부떠 시작헌다.

⑨ 살앙 이시민 희망은 싯나.

⑩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나.

⑪ 성공은 벗을 멩글곡 역경은 벗을 시험헌다.

⑫ 지혜 엇인 심은 이녁 무게로 씨러진다.

## 74

**문** '당대에도, 나 대에도, 후손에게도 이렇게 될 거라.'라는 문장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 알 수 없음, 도내)

**답** '당대'는 '일이 있는 바로 그 시대'라는 뜻으로 제주어이면서 표준어입니다. '대'는 '지위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대에도, 나 대에도, 후손신디도 영 뒐 거라.'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제주어를 표준어로

**1**

**문** '구경 잘 헙서.'가 '구경 잘 하세요.'라는 뜻인가요?(○○○, 40대, 여, 도내(이주민))

**답** '구경 잘 헙서.'는 '구경 잘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2**

**문** '혼저 옵서예.'는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신 쓸 수 있나요?(○○○, 40대, 남, 도외)

**답** '혼저 옵서예.'는 '어서 오세요.'의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사말 '안녕하세요.' 대신 쓸 수는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3**

**문** '머리광 무사 경허게 졸라시니? 스나이추룩.'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50대, 남, 도외)

**답** '머리랑(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니? 사내아이처럼.'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문** '올해는 나스미깡이 좌락좌락 열엇어.'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올해는 하귤이 주렁주렁 열렸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

**문** ‘흔저흔저 신청하십서양.’을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내)

**답** ‘어서어서 신청하세요.’라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하십서’가 아니라 ‘허십서’ 또는 ‘ᄒᆞ십서’라고 합니다.

## 6

**문** 다슴아방 궤기 써는 딘 가고데고, 촘아방 낭 깨는 딘 가지 말라.’라는 말을 표준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음)

**답** ‘의붓아버지 고기 써는 덴 가더라도(갈지라도), 친아버지 나무 패는 덴 가지 말라.’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속담은 장작 패는 데는 아무리 친아버지라도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고데고’는 ‘앞의 동작을 하더라도’라는 뜻으로 표준어의 ‘-더라도’, ‘-을지라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7

**문** 올렛길에 쓰인 문장이 궁금해서요. ‘어디 감시니? 나 ᄆᆞ심더레 왐시냐?’라는 문장을 표준어로 바꿔 주세요.(○○○, 50대, 여, 도외(제주 출신))

**답** '어디 가니(가고 있니)? 내 마음으로 오고 있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8

**문** '이어도 사나'의 한 구절입니다. '앞이 묽은 서낭님아! 물건 좋은 여끗딜로 득달허게 허여나 줍서.'를 표준어로 바꿔 주세요.(○○○, 50대, 여, 도외)

**답** '앞이 맑은 선왕님아! 물건 좋은 여 끝으로 득달하게 해 주세요.'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득달하다'는 '목적한 곳에 도달하다. 또는 그 목적을 이루다'라는 의미입니다.

## 9

**문** '몇 명 추련?'이라고 할 때 '추련'은 제주어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추련'은 '추렸어?'라는 뜻으로 '섞여 있는 것에서 여럿을 뽑아내거나 골라내다'의 뜻인 표준어 '추리다'에 '-ㄴ'이 덧붙은 것입니다.

## 10

**문** '헷네', '먹엇네'에서 '-네'는 표준어로 무슨 뜻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네'는 표준어에서 '단순한 서술', '깨달은 일에 대한 서술'의 의미로 쓰이지만 제주에서는 '했잖아', '먹었잖아' 등 확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11

**문** 제주어 '보냄덴'은 표준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보낸다고', '보내고 있다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덴'은 종결어미 '-다'와 인용격 조사 '엔'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 12

**문** 제주어 '-헷덴'을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했다고' 또는 '했대'라고 합니다. '헷덴'의 '-덴'은 종결어미 '-다'와 인용격 조사 '엔'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 13

**문** '무당이 동티 걸리민 집집마다 불 쌍 빌어준다.'에서 '동티'와 '불 쌍'은 무엇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동티'는 '건드려서는 안 될 땅을 파거나 돌을 치우는 등 무언가를 잘못 건드려서 재앙을 받는 것'의 의미로 표준어이면서 동시에 제주어입니다. '불 쌍'은 '불을 켜서'라는 뜻으로 무당에게 일이 생기면 촛불 등을 켜서 함께 빌어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티'는 '걸리다'와 결합되는 것보다 '동티가 나다'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 14

**문** 어부 노래의 노랫말 가운데 'ᄀᆞᆺ트로'가 나옵니다. 이때 'ᄀᆞᆺ트로'는 표준어로 무엇이라 하나요?(○○○, 40대, 여, 도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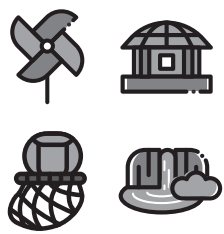
**답** ‘긋’은 표준어로 ‘가장자리, 가’라는 뜻을 지닌 어휘입니다. 그러므로 ‘긋트로’는 ‘가장자리로’, ‘바깥으로’, ‘해변으로’와 같이 대역할 수 있습니다.

## 15

**문** ‘허염직이’를 표준어로 바꾸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김○○, 50대, 남, 도내)

**답** ‘허염직이’를 표준어로 바꾸면 ‘하염직이’가 됩니다. ‘하염직이’는 ‘하염직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하염직하다’는 ‘할 만하다 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습니다.

# 3. 뜻풀이



## 1

**문** '엥그리다'가 무슨 뜻인가요?(○○○, 40대, 남, 도내(이주민))

**답** '엥그리다'는 '글자, 그림 따위를 장난으로 아무 데나 함부로 쓰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 2

**문** 제주 동요에서 '까마귀 노래 혼 빗 도라.' 할 때 '빗'이 무슨 뜻인가요?(○○○, 40대, 남, 도내)

**답** '빗'은 ① 머리 빗는 도구 ② 남에게 갚아야 할 돈 ③ 시신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전자기파 ④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조각 ⑤ 전복을 뜻하는 말(합성어에서만 출현: 빗창) 등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래 한 빗 도라'에서의 '빗'은 위 뜻 가운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곡조'나 '곡'의 의미이기 하지만 동요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문** '셍이 쪼짝'이라고 할 때 '쪼짝'이 뭔가요? 혹시 새가 우는 소리인가요?(○○○, 40대, 남, 도내)

**답** '쪼짝'은 보통 '얼굴이나 물건의 모습만 한 번 슬쩍 내밀거나 나타내는 모양', '앞으로 불쑥 나서는 모양'을 가리키는 제주어입니다.

## 4

**문** '기린'이 무슨 뜻인가요?(진○○, 50대, 여, 도내)

**답** '기리다'는 '그림을 그리다'나 '사람을 그리워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제주어입니다. 앞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 '기린'의 의미는 달라질 듯합니다.

## 5

**문** '춥다'의 제주어로 '얼다', '실렵다', '써능허다', '건드렵다', '고습다', '고슬다' 등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양○○, 50대, 여, 도내)

**답** ① 얼다–춥다 ② 실렵다–시리다, 차갑다 ③ 써능허다–차갑다, 써늘하다 ④ 건드럽다–선선하다 ⑤ '고슬다', '고습다'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곳다'와 관련이 있는 어휘로 보입니다. '곳다'는 표준어 '곱다'에 해당하는 어휘로,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고 놀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 6

**문** 해녀가 물질을 끝내고 뭍에 올라왔을 때 '사꾸라 핀 거 보난 물질 열심히 헤신게.'라고 말한다는데, '사꾸라 핀 것'이 무슨 뜻인가요?(장○○, 50대, 여, 도내)

**답** 추운 데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에 오면 몸에 불긋불긋 반점이 생기는 것을 '꼿 피엇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꼿(꽃)' 대신에 일본어로 벚꽃인 '사쿠라(さくら)'가 피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 우도면에서는 이를 '술꼿'이라고도 표현합니다.

## 7

**문** KCTV 제주어 뉴스에서 '요ᄒᆞ루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20대, 남, 도내)

**답** '요ᄒᆞ루기'는 '며칠 전', '지난 어느 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제주어입니다. 표준어 '요마적'에 해당합니다.

## 8

**문** '절총박다'라는 말의 뜻이 《개정증보 제주어사전》과 《제줏말큰사전》에 정반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는 '토지 소작에 있어서 흉풍(凶豊)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량을 지주에게 주기로 계약하다'로, 《제줏말큰사전》에는 '흉풍에 따라 정한 수량을 주고 받기로 하고 계약하다'로 올라 있습니다. 흉풍에 따라 소작료가 달라지는 것인지 일정하게 주는 것인지, 어떤 뜻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알 수 없음)

**답** '절총박다'는 한자어 '결총(結總)'이 구개음화된 형태인 '절총'과 고유어 '박다'로 이루어진 어휘입니다. 여기서 한자어 '결총'은 '조선 시대 토지세 징수 기준이 되는 논밭 면적의 전체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 '절총박다'는 밭이 300평이면 300평에 따른 소작료를 내기로 인정하고 승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줏말큰사전》에서 '절충하여 결정하다'라고 풀이한 것은 '절총'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 9

**문** '좌전'이 무슨 뜻인가요?(○○○, 40대, 남, 도내)

**답** '좌전'은 '묘를 관리하는 대가로 부쳐 먹는 밭'으로 달리 '산좌전'이라고도 합니다. 표준어로는 '사래'를 말합니다. 제주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제월전'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벌초하는 몫으로 경작하는 밭(묘위전 · 제위전)'을 말하며 '소분밧', '제월밧', '제월제', '제월지'라고도 합니다.

## 10

**문** '게숨하다'의 뜻이 궁금하여 찾아보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게숨하다'를 '심술부리다'의 제주 방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서 '게심다리'는 '질투를 잘하는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게심다리'는 '게숨다리'로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게숨하다', '게숨부리다'는 '심술부리다'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질투하다'의 의미인가요?(○○○, 알 수 없음)

**답** 《표준국어대사전》에 '게숨하다'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말샘〉 사전에 '심술부리다'의 제주방언으로 '게슴하다'가 있습니다. '게숨다리', '게움다리', '게슴다리' 등과 같은 형태는 '심술꾸러기'로 제시되어 있고, '게움'은 '심술'과 '게염'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어 '게숨'은 표준어 '게염'으로 '부러워하며 시샘하여 탐내는 마음'을 말하며 '게숨허다'는 '게염을 부리는 행동을 하다'입니다. 의미상 유사성은 있겠지만 '심술부리

다'나 '질투하다'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 듯합니다.

## 11

**문** '요새는 항망데기, 그릇, 수저 다 데켜버려.'라는 문장에서 '항망데기'는 아주 작은 항아리라는 뜻인가요?(○○○, 알 수 없음, 도내)

**답** '항망데기'는 '항'과 '망데기'의 합성어인 것 같습니다. '항'은 '항아리'를 '망데기'는 '작은 독'을 말합니다. '데켜 버려'는 '데껴 불어'인 것 같고, 표준어로 '던져 버려'라는 뜻입니다.

## 12

**문** '아무에게도 덕은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덕'은 '은혜'를 말하는 건가요?(○○○, 알 수 없음, 도내)

**답** '덕'은 한자어 '덕(德)'으로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 13

**문** '죽으면 돈이 납작납작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라는 문장을 들었습니다. 이때 '납작납작하다'가 무슨 뜻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돈'과 '납작납작하다'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납작납작하다'는 '바닥이나 물건 표면에 바짝 달라붙은 모양'으로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로만 쓰입니다. 제시하신 문장만으로는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 14

**문** '저 호끄락한 차는 뭐라?', '저 조끄락한 사람은 누구?'라는 문장을 보았는데 '호끄락'과 '조끄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40대, 여, 도내)

**답** 'ᄒᆞ끄락허다', '조끄락허다'는 표준어 '쪼그마하다' 또는 '쪼끄마하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조그마하다'보다 강한 느낌, '조군가하다'보다 아주 센 느낌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헤끄만허다' 또는 '헤끌락허다'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 15

**문** '나 이녁 소못 소랑헴수다.'가 무슨 뜻인가요?(김○○, 30대, 여, 도외)

**답** '나 당신을 무척(사뭇)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녁'은 듣는 이를 조금 낮추어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입니다.

## 16

**문** '머릿니가 궤다'라고 할 때 '궤다'가 무슨 뜻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궤다'는 ① 간장 따위가 발효하다 ② 받치어 안정시키다 ③ 물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 ④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 ⑤ 벌레 따위가 한곳에 모여들어 뒤끓다 ⑥ 액체가 몹시 뜨거워져서 소리를 내며 거품이 솟아오르다 등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머릿니'와 함께 쓰이면 '벌레 따위가 많이 들끓다'는 의미입니다.

## 17

**문** '닐모리랑 오라.'라고 할 때 '랑'은 무슨 뜻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랑'은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 다음에 연결되어 그 장소나 시간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표준어로는 '에는'이라고 대역하시면 됩니다.

## 18

**문** '옷 봉 사름 금세ᄒᆞ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나요? '금세'는 무슨 말인가요?(홍○○, 20대, 여, 도외)

**답**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금세ᄒᆞ다'는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 19

**문** '몽근 도치'가 무슨 말일까요?(최○○, 60대, 남, 도내(이주민))

**답** '몽근 도치'는 날이 무디어진 도끼를 말합니다. '몽글다'는 '물건이 너무 쓰이어 다 닳아지고 모자라지다.'의 뜻이며 '도치'는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인 '도끼'의 제주어입니다.

## 20

**문** '꿩마농'에서 '꿩'이 무슨 뜻인가요?(신○○, 60대, 남, 도외)

**답** 달래를 '꿩마농'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꿩'의 의미는 '들에서 자라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꿩알의 모양'에서 온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21

**문** '코삿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코삿ᄒᆞᆫ'을 '행복한'의 의미로 써도 될까요?(○○○, 40대, 여, 도내)

**답** '코삿ᄒᆞ다'는 '무슨 일이 마음에 맞아 흡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족스러워서 행복한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22

**문** '푸닥거리', '푸다시'는 무슨 뜻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푸닥거리'는 표준어이고, '푸다시'는 표준어 '푸닥거리'에 대응하는 제주어입니다. '푸다시'는 '병이나 잡귀를 쫓아내기 위하여 하는 굿'을 말합니다.

## 23

**문** '느 우렁, 나 우렁, 문 우렁'이라는 문장에서 '문 우렁'은 무슨 뜻인가요?(김○○, 50대, 남, 도내)

**답** '우렁'은 '울엉'이라고 표기하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 울엉'은 '모두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즉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라는 문장입니다. 이때 표기는 '느 울엉, 나 울엉, 문 울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 24

**문** '넹바리'는 무슨 뜻인가요?(이○○, 60대, 남, 도내)

**답** ‘넹바리’는 잘 구워지지 않아서 불을 붙이면 연기와 냄새가 나는 숯을 말합니다. ‘비바리’와 대조적으로 ‘결혼한 여자’, ‘과부’를 말한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 25

**문** ‘달체’를 〈우리말샘〉에 검색해 보니 ‘들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체’가 ‘지게’를 가리키기도 하나요?(김○○, 50대, 여, 도내)

**답** 《제주어사전》에는 비슷한 형태의 ‘돌체’가 ‘임시로 만든 지게’로 나와 있습니다. ‘돌체’가 맞다면 표준어 ‘들것’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 26

**문** 작은할머니께서 ‘엉’은 ‘작은 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낭떠러지’라는 뜻은 없나요?(김○○, 50대, 여, 도내)

**답** ‘엉’은 표준어 ‘낭떠러지’에 해당하는 어휘입니다. 달리 ‘엉장’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낭떠러지’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보통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굴’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 27

**문** ‘갤롱뱅이’는 무슨 말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갤롱뱅이’는 ‘벨롱겡이’가 아닌가 합니다. ‘벨롱겡이’는 일종의 ‘안택(安宅)’으로 ‘집안의 행운을 비는 굿’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제주시 동부 지역에서 '벨롱겡이'라고 부릅니다.

## 28

**문** '반지롱ᄒᆞ다'를 업사이클링 장터의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김○○, 30대, 여, 도내)

**답** '반지롱ᄒᆞ다'는 ① 구김살이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고 반반하다 ② 먼지나 어지러운 것이 없이 깨끗하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반반하다', '단정하다', '깨끗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29

**문**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 방언 사전에 게시된 '벡토'는 무슨 뜻인가요?(○○○, 50대, 남, 도내)

**답** 누리집 확인 결과 분류는 '가옥'으로 되어 있어, '벽토(壁土)'나 '백토(白土)'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누리집에 제시된 한자가 '백토(白土)'이므로, 고건축에서 '앙토(仰土)'로 쓰는 '백회'를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30

**문** 모기에 의한 질병인 상피병을 제주에서는 '코끼리 다리, 피 내림 병, 수종다리, 수중다리'라고 하나요? '수종다리'는 무슨 뜻인가요?(이○○, 20대, 여, 도외)

**답** '수종다리'는 '수종'과 '-다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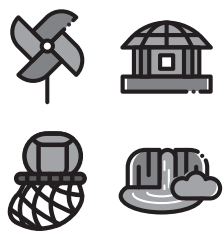
'수종'은 '부종', '부증'을 뜻하며, '-다리'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종다리'는 '다리가 부은 증세를 가진 사람'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31

**문** 국제평화센터의 한·아세안 전시관 이름을 제주어로 짓고 싶습니다. '벨라진'은 '열린'의 의미를 갖고 있나요?(김○○, 30대, 남, 도외)

**답** '벨라지다'는 '벌어지다', '야무지다', '바라지다', '특별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제주어입니다. '열리다'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벨라지다'가 '벌어지다'로 쓰이는 것은 '열매 등이 익어서 속이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 4. 표기



## 1

**문** '실풀일랑 기린 듯ᄒᆞ라.'에서 'ᄒᆞ' 대신 '허'를 써도 되나요?(진○○, 50대, 여, 도내)

**답** '하기 싫은 일일랑 그리운 듯하라.'는 뜻으로 'ᄒᆞ다' 대신 '허다'를 써도 됩니다. 'ᄒᆞ다'는 '허다'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ᄒᆞ다', '허다' 어느 쪽을 써도 됩니다.

## 2

**문** 아래의 표기가 맞는지 검토해 주세요.(○○○, 30대, 여, 도내)

① 곱으라 행

② 숨으렌

③ 타버리니까예

④ 나무를 해당

⑤ 매달렁

⑥ 가 봣으믄

**답** ① 곱으라 헹

② 숨으렌

③ 불카 부난예

④ 낭을 헤당

⑤ 메둘렁

⑥ 가 봐시믄

①, ④에 사용한 '하다'의 제주어는 '허다' 또는 'ᄒᆞ다'입니다. 따라서 '헹', '헤당'이 맞는 표기입니다. ②의 '숨으렌' 표기도 맞습

니다. 다만 '숨다'는 '곱다'로도 사용되므로 '곱으렌'처럼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③의 '예'는 표준어 '요'와 같은 의미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다만 '불타 버리니까예'보다 '불카 부난예'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⑥의 '-으믄'은 제주어에서 '-으민'으로도 발음됩니다. '가봇이민' 또는 '가봐시민'으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 3

**문** '읽으쿠다'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50대, 여, 도내)

**답** '읽다'는 제주에서 '익다'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익으쿠다'라고 씁니다.

※ '읽다'처럼 겹받침 용언의 기본형을 알아보려고 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엉'이나 '-앙'을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읽-+-엉=[일겅](×) 익-+-엉=[이겅](○)

예에서 보듯이 발음이 [일겅]이 아니라 [이겅]이므로 기본형은 '익다'입니다. 그러므로 '익으쿠다'로 표기하면 됩니다.

## 4

**문** '일어나렌/일어나랜' 중 어느 것이 맞는 표기인가요?(○○○, 50대, 여, 도내)

**답** '일어나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명령형 어미 '-라'와 인용격 '엔'이 결합된 형태는 '렌'으로 나타납니다. '일어나렌'으로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 5

**문** '요망지다'라고 할 때 '요' 표기는 'ㅛ'인가요, 쌍아래아(ᆞᆞ)인가요?(○○○, 40대, 남, 도내)

**답** 'ᄋᆞ망지다'는 '야무지도 똑똑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 쌍아래아(ᆞᆞ)를 사용하여 'ᄋᆞ망지다'라고 표기합니다.

## 6

**문** 제주어 '영'과 '경'은 어떻게 띄어 쓰나요?(○○○, 40대, 여, 도내)

**답** '영'은 '이렇게', '경'은 '그렇게'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뒷말과 띄어서 사용합니다.

## 7

**문** '가실거라'는 어떻게 띄어 쓰나요?(○○○, 40대, 여, 도내)

**답** '가실 거라'는 표준어 '갔을 거야'로 '가실 거라'처럼 띄어 쓰시면 됩니다.

## 8

**문** '바람'을 제주어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인터넷 환경에서 아래아(ㆍ)를 쓸 수 없을 때 '보름'과 '바름' 중 어떤 형태로 써야 할까요?(김○○, 50대, 남, 도내)

**답** '바람[風]'의 제주어는 'ᄇᆞ름'입니다. 인터넷에서 아래아(ㆍ)가 구현되기 않기 때문에 '보(아래아)름'처럼 쓰기도 합니다. 아래아(ㆍ)를 쓰는 것이 좋지만 쓸 수 없을 때 좀 더 제주어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한다면 '보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9

**문** '-헤 도라'라고 할 때 '도라'와 'ᄃᆞ라' 중 무엇이 바른 표기인가요?(○○○, 20대, 남, 도내)

**답** '-해 달라'의 뜻이라고 하면 '도라'라고 표기합니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서는 '도라'는 표준어 '달라'의 뜻으로 "'해라' 할 자리에서 직접 대하여 무엇을 주라고 요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15세기 문헌인 《석보상절》 등에도 '도라'가 쓰이고 있어 '도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어 '달다'(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다.)도 '달라', '다오' 정도로 그 쓰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10

**문** 나이를 세는 단위인 '살'을 '술'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나요?(○○○, 20대, 남, 도내)

**답** 나이를 세는 단위 명사 '살'은 '술' 또는 '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 11

**문** 외국인 생활정보 웹툰의 제주어 표기를 수정 부탁드립니다.(김○○, 40대, 남, 도내)

가: '뭔일 이수꽝?'
나: '뭔말인디샤 알아듣지 못행 귀눈이 왁왁햄쪄. 호끔만 이서 봅써.'
가: '여기 외국인이 뭐랜 나신드레 막 고람신디 뭔말인지 영 모르쿠다. 호썰 중간치서 도와줍써.'
나: '경허댄 헙데강? 게민, 이추룩 좀 고라줍써.'
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주소개' 메뉴에 '외국인 생활정보'랜 헌 것이 이신디 거기 들어가믄 창업정보영, 투자정보영, 이것저것 알아질꺼랜. 경허곡, 관련단체에 보믄 온라인 한국어 강좌 듣는 것도 이시난 걱정말랜 헙써.'

**답**

가: '무신 일 이수광?'
나: '무신 말신디사 알아듣지 못허영 귀눈이 왁왁허다. ᄒᆞ꼼만 이서 봅서.'
가: '이디 외국인이 무신거렌 나신드레 막 ᄀᆞᆯ암신디 무신 말산디 ᄂᆞ시 몰르쿠다. ᄒᆞ쏠 중간에서 도웨 줍서.'
나: '경허덴 헙데강? 게민 이추룩 좀 ᄀᆞᆯ아 줍서.'
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허민 '제주소개' 메뉴에 '외국인 생활 정보'렌 헌 것이 이신디 그디 들어가믄 창업 정보영 투자 정보영 이것저것 알아질 거렌. 경허곡 관련 단체에 보믄 온라인 한국어 강좌 듣는 것도 이시난 걱정말렌 헙서.'

## 12

**문** 제주어로 '같다'는 'ᄀᆞᆮ다', 'ᄀᆞ트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같은'을 'ᄀᆞ뜬'이라고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ᄀᆞ튼'과 'ᄀᆞ뜬' 중 무엇이 맞는 표기인가요?(○○○, 20대, 남, 도내)

**답** '같다'는 제주에서 'ᄀᆞᆮ다', 'ᄀᆞ트다', 'ᄀᆞ뜨다'로 나타납니다. 몇몇 단어에서 'ㅌ'과 'ㄸ'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어에서는 어느 하나를 대표형으로 잡지 않고 여러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 13

**문** '낮다'를 '놎다'라고 쓴 제주어 문장을 보았습니다. '놎다'가 맞는 표기인가요?(○○○, 20대, 남, 도내)

**답**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의 '낮다'는 제주어에서 '놎다'로 나타납니다. 중세국어 '놎다'의 형태가 제주어에서 여전히 실현되는 것으로 봅니다.

## 14

**문** '쥐어 주신'은 [쥐여 주신]으로 소리나는데, '쥐여 주신'으로 표기해야 하나요?(김○○, 50대, 여, 도내)

**답** '쥐어 주신'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쥐여]로 소리가 나더라도 표기는 '쥐어'로 해야 합니다.

## 15

**문** '고렌/ᄀᆞ렌' 중 무엇이 맞는 표기인가요?(박○○, 20대, 남, 도내)

**답** '먹엇고렌', '왓고렌'처럼 쓰일 때는 '-고렌'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에게/보고'의 의미로 'ᄀᆞ라'가 있는데 이 단어와 혼동을 하여 'ᄀᆞ렌'이라고 한 듯합니다.

## 16

**문** '담다/듬다' 중 무엇이 맞는 표기인가요?(○○○, 20대, 남, 도내)

**답** 표준어 '담그다'에 해당하는 제주어는 '담다', '듬다'로 둘 다 나타납니다.

## 17

**문** '맞춰'를 '맞촹(ㅊ+ㅘ+ㅇ)'으로 제주어 표기한 것을 보았는데, '맞춰'과 '맞촹' 중 무엇이 맞는 표기인가요?(○○○, 20대, 남, 도내)

**답** 표준어 '맞추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맞초다', '맞추다'로 실현됩니다. 여기에 모음 어미 '-앙/-엉'이 연결되면 '맞촹' 또는 '맞춰'으로 나타납니다. 제주에서는 대개 '맞촹'의 형태가 많이 실현되며 '맞춰'은 표준어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형태로 보입니다. 참고로 '맞추다'의 옛말은 '마초다'입니다.

## 18

**문** '문화' 뒤에 '밭'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때 '밧/왓/팟' 중 어떤 것과 써야 자연스러울까요?(이○○, 40대, 여, 도내)

**답** '문화' 다음에는 '밧'이나 '왓'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팟'은 앞에 오는 단어가 'ㅎ' 종성 체언이거나 합성 과정에서 'ㅎ'이 덧나는 경우 나타나는 것입니다.

## 19

**문** 어떤 블로그에 '다르다'의 제주어가 'ᄐᆞ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KCTV 제주어 뉴스에서는 'ᄄᆞ나다'라고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둘 중 무엇이 맞는 표기인가요?(○○○, 20대, 남, 도내)

**답** '다르다[異]'의 제주어는 '다르다', '달르다', '뜰리다', '틀리다', 'ᄄᆞ나다', 'ᄐᆞ나다' 등으로 나타납니다. 'ᄐᆞ나다', 'ᄄᆞ나다'뿐 아니라 제시한 다른 어떤 것으로 써도 됩니다.

## 20

**문** 제주어 '합서'를 어떻게 표기하나요? 표준어 '하다'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20대, 여, 도내)

**답** 표준어 '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ᄒᆞ다', '허다'입니다. 따라서 '헙서' 또는 'ᄒᆞᆸ서'라고 쓰면 됩니다.

## 21

**문** '도르멍 도르멍'을 사전에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표기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도르멍'은 'ᄃᆞᆯ으멍'이라고 써야 합니다. 'ᄃᆞᆯ으멍'은 'ᄃᆞᆯ다'의 활용 형태이므로 '달리다'의 뜻을 갖는 'ᄃᆞᆯ다'로 찾아야 합니다. 사

전에서는 '듣다'로 찾으시고 '들으멍 들으멍'처럼 쓰면 됩니다.

## 22

**문** 용담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용두암을 뜻하는(정확히는 용 머리를 뜻하는) 단어로 '용ᄆᆞ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기가 맞는 건가요?(○○○, 20대, 남, 도내)

**답** '용두암'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용머리'가 맞습니다. 'ᄆᆞ르'는 '마루'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산 따위의 등성이 진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 23

**문** '마스크 멩심헹 착용헙서양.'이 맞는 표기인가요? 아래아(ㆍ)를 안 써도 되나요?(○○○, 40대, 남, 도내)

**답** 네, 맞는 표기입니다. 아래아(ㆍ)를 사용하여 '착용흡서양'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멩심헹 씁서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 24

**문** 다음의 제주어 표기를 확인하고 싶어요.(박○○, 20대, 여, 도내)

① 뭐꽈

② 뭐햄수꽈

③ 하영 속암수다

④ 낮설지 않수다

⑤ 메께라

⑥ 뭐하맨

⑦ 빨라진

**답** ① 무신거우꽈/무신거꽈

② 무신거 헴수과

③ 하영 속암수다

④ 놋설지 안허우다

⑤ 메께라/메시께라

⑥ 무신거 허멘

⑦ 빨라진

## 25

**문** 제주어 '베롱하다'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30대, 남, 도외)

**답** '베롱ᄒᆞ다' 또는 '베롱허다'라고 표기합니다.

## 26

**문** 인쇄 과정에서 아래아( · )가 '•' 형태로 나오는데 틀린 건가요?(○○○, 50대, 여, 도내)

**답** 아래아( · )는 글꼴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글씨체에 따라 다르게 인쇄되는 것이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27

**문** 〈삼춘 고라줍서〉라는 홍보지의 칼럼 이름이 있는데 제주어로 정확한 표기 방법을 알려 주세요.(○○○, 50대, 여, 도내)

**답** '고라 줍서'를 'ᄀᆞᆯ아 줍서'로 바꾸어서 '삼춘 ᄀᆞᆯ아 줍서'로 쓰면 되겠습니다.

※ '말하다'의 뜻인 제주어 'ᄀᆞᆮ다'는 'ㄷ'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활용할 때 받침 'ㄷ'이 'ㄹ'로 변하기도 합니다. 'ᄀᆞᆮ다'의 어간 'ᄀᆞᆮ-'에 어미 '-아'가 연결되면 'ᄀᆞᆮ아〉ᄀᆞᆯ아'로 변하기 때문에 'ᄀᆞᆯ아 봅서'라고 써야 합니다. 'ㄹ'은 'ㄷ'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ㄷ'의 자리에 'ㄹ'을 써야만 합니다.

## 28

**문** '오늘 폭삭 속아수다. 모믈국시 먹엉 펜안허게 쉽서양.'의 올바른 표기를 알려 주세요.(○○○, 40대, 남, 도내)

**답** '오널 폭삭 속아수다(속앗수다). ᄆᆞ멀국시 먹엉(잡솨) 펜안허게 쉽서양.'이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 29

**문** 방송 자막으로 쓰려고 합니다. 방을 꾸밀 때 빈티지 공법의 '인터스트리얼'에 '왔수다'를 붙이고 싶은데, '왔수다'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30대, 남, 도내(이주민))

**답** '왓수다', '와수다'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어에서 받침에 쌍시옷을 쓴 '왔수다'는 쓰지 않습니다.

## 30

**문** '지키고 싶은'의 제주어 표기는 '직ᄒᆞ고 시픈', '직호고 시픈' 둘 중 무엇이 맞나요?(고○○, 20대, 여, 도내)

**답** '지키다'의 제주어는 '지키다', '직ᄒᆞ다' 또는 '직허다'입니다. '직ᄒᆞ고 시픈'이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직허고정헌', '직ᄒᆞ지 기룬' 등도 가능합니다.

## 31

**문** '안 햄주'가 맞나요, '안 헴주'가 맞나요?(○○○, 50대, 여, 도내)

**답** 'ㅐ'를 쓴 '안 헴주'가 맞는 표기입니다.

## 32

**문** 묘를 옮기는 '철리'는 어떻게 쓰나요? 표준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내)

**답** '천리'는 한자어 '遷移'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옮긴다는 의미의 한자에서 온 것으로 '천리'라고 쓰고, [철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표준어로는 '이장', '천묘', '면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 33

**문** '여기 왕 폭삭 속아수다예.'라는 제주어 문장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표기하나요?(김○○, 40대, 남, 도외)

**답** '이디 오랑(왕) 폭삭 속아수다예(속앗수다예).'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 34

**문** ‘혼디 어울엉’은 어떻게 표기하나요?(김○○, 40대, 남, 도내)

**답** ‘ᄒᆞᆫ디 어울엉’이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라는 뜻입니다.

## 35

**문** 시장에 붙일 건데 ‘왕 봉 갑써.’, ‘왕 봉 삽써.’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쓰나요?(홍○○, 50대, 남, 도내)

**답** ‘왕 봉 갑서.’, ‘왕 봉 삽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붙인다면 ‘와서 보고 사세요.’라는 의미인 ‘왕 봉 삽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 36

**문** ‘–하는데’의 제주어 표기는 ‘–ᄒᆞ는듸’, ‘–ᄒᆞ는디’ 중 무엇이 맞나요?(○○○, 20대, 남, 도내)

**답** ‘–ᄒᆞ는디’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제주어 표기법」에 따르면 ‘ㅢ’와 ‘ㅟ’는 한자어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37

**문** ‘명수야, 저낙에 먹게 밧에 가서 부루 좀 아져오게.’라는 문장의 제주어 표기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홍○○, 30대, 여, 도외)

**답** ‘명수야, 저냑에 먹게 밧디 강 부루 ᄒᆞ꼼 ᄐᆞᆫ앙 오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져오다’는 ‘가져오다’의 제주어인데, 상추는

'뜯어오다'의 표현이 더 적당할 듯합니다. 참고로 '-게'가 명령형 어미로 쓰이는 경우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사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쓰는 말투입니다. 청유형으로 같이 '가져오자'의 의미라면 '아져오게'라고 쓸 수 있습니다만, '명수야'가 있는 걸로 보아서 명령형이므로 '-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38

**문** '모다드렁 걸으멍 줍게 마씀.'의 제주어 표기를 알려 주세요. (○○○, 40대, 여, 도내)

**답** '모다들엉 걸으멍 줍게마씀.' 등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모다들엉', '걸으멍'은 소리나는 대로 '모다드렁', '거르멍'처럼 쓰지는 않습니다. 제주어도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다들다', '걷다'에 '-엉', '-으멍'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모다들엉', '걸으멍' 처럼 표기하시면 됩니다. '줍게'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이지만 제주에서도 표준어형도 함께 사용하므로 '줍게'로 써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제주어답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줏으게'로 쓸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줍다'는 '줏다'로 '줏언', '줏으민', '줏곡'처럼 활용합니다. '-마씀'은 '-마씸', '-마씨'로도 쓸 수 있으니 더욱 자주 사용하시는 말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줍게 마씀'은 붙여 쓴 '줍게마씀'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 39

**문** '얼굴에 포리춤이 생겨수다게.'의 제주어 표기가 맞나요?(홍○○, 20대, 여, 도외)

**답** '얼굴에 ᄑᆞ리춤이 생겨수다게(생겻우다게).'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근깨를 뜻하는 '포리춤'은 아래아( · )가 있는 'ᄑᆞ리춤'으로 쓰셔야 합니다.

## 40

**문** '양칩이', '현칩이' 할 때 의미는 무엇이고 그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대, 여, 도내)

**답** '양칩이', '현칩이'는 '양씨 집안의', '현씨 집안의'의 의미입니다. 표기는 '치비'가 아니라 '칩이'로 쓰면 됩니다.

※ 제주어에서 합성어를 이룰 때 'ㅎ' 첨가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양칩' 하면 '양씨댁', '현칩' 하면 '현씨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양+ㅎ+집', '현+ㅎ+집' 구성입니다.

## 41

**문** 제주시 성안에 살던 아이를 '시엣아이'라 불렀는데, 정확한 표기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에따이', '시네따이', '시엣아이' 등 다양해요. 동시에 '촌엣아이', '서귀포따이' 등의 표기도 알려 주세요.(○○○, 알 수 없음)

**답** '시엣아이'는 '시에 사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제주 사람들이 [시엗따이], [시에따이]라고 발음합니다. 제주어에서는 두

단어가 합쳐질 때 'ㅅ'을 넣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급하신 '서귀포 아이', '촌 아이' 등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면 붙여 쓴 '시엣아이'로 표기할 수 있고, 각기 다른 단어의 결합 형태로 본다면 '시에 아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 [시엗따이]나 [시에따이]처럼 발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어사전》에는 하나의 단어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에 아이'라고 쓰고 [시엗따이] 혹은 [시에따이]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42

**문** '누게꽈? 누게과? 누겟과?' 중 어느 표기가 맞나요?(김○○, 50대, 여, 도내)

**답** '누게꽈?' 혹은 '누게우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43

**문** 표준어 '어디 갔다 왔니?'를 제주어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나요?(정○○, 30대, 여, 도내)

**답** '어디 갓단(갓당) 와시니?'처럼 씁니다.

## 44

**문** '병이 낫다'라고 할 때 '낫다'에 '-아'가 연결되면 제주어에서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30대, 여, 도내)

**답** '낫아'라고 쓰고 [나사]라고 읽으면 됩니다.

※ '낫다[癒]'는 표준어와 달리 'ㅅ' 불규칙 용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다'가 활용할 때는 받침의 'ㅅ'은 유지됩니다. 예) 낫곡, 낫지, 낫앙, 낫안.

## 45

**문** '영헌 사름도 이수다.'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영ᄒᆞᆫ' 또는 '영헌'으로 쓰면 되나요?(○○○, 40대, 남, 도내)

**답** '영헌'이나 '영ᄒᆞᆫ'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하다'는 제주어에서 '영ᄒᆞ다', '영허다', '이영ᄒᆞ다', '이영허다' 등으로 나타납니다.

## 46

**문** '미테집 할망 오랜만에 봐신디예, 포리똥이 하영이서라게.'라는 문장의 제주어 표기를 맞게 수정 부탁드립니다.(홍○○, 20대, 여, 도외)

**답** '알녁칩(알녁집) 할망 오랜만에 봐신디 ᄑᆞ리똥이 하영 이서라게(잇어라게)'로 수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미테집'을 바르게 수정하면 '밑에집'일 텐데 이 말보다는 '알녁칩(알녁집)'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반말로 하는 상황이니 '봐신디예'에서 '예'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포리똥'은 'ᄑᆞ리똥'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근깨를 가리키는 'ᄑᆞ리똥'은 'ᄑᆞ리춤', 'ᄑᆞ리침'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영이서라게'는 띄어쓰기를 한 '하영 이서라게(잇어라게)'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 47

**문** '빙삭이 우습써.' 또는 '빙새기 우습써.'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이○○, 50대, 여, 도내)

**답** '빙삭이(빙쎅이) 웃읍서.'라고 쓰면 됩니다.

## 48

**문** '고름베기'를 표기할 때, '베기'로 써야 하나요? '배기'로 써야 하나요?(한○○, 40대, 여, 도내)

**답** '고름베기'는 '힘이나 기량이 비슷하여 승부를 가리지 못하여 비기거나 비긴 양쪽'을 뜻하는 말로 그 표기는 '베기', '배기' 모두 가능합니다. 모음 'ㅐ'와 'ㅔ'는 첫음절이나 단음절에서는 구분되나 2음절부터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단, 현재 제주어 표기에서는 2음절 이하의 경우 'ㅔ'로 쓰고 있습니다.

## 49

**문** 제줏말에 '짐이 이김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양○○, 70대, 남, 도내)

**답**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은 '짐이 이김이라.' 혹은 '짐이 이김이여.'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 50

**문** '제가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을 붓으로 써서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려고 하는데요. 제주어로 어떻게 표기하면 될

까요?(○○○, 알 수 없음)

**답** '제가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는 '나가 이녁을 잘도(ᄉᆞ뭇) ᄉᆞ랑ᄒᆞ염수다.'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 51

**문** '베려보다'라는 제주어가 있나요? 어떻게 표기하나요?(○○○, 30대, 남, 도내)

**답** '베려보다'는 표준어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제주에서 씁니다. '보다'를 제주에서는 '베리다'라고 합니다.

## 52

**문** 제주 감귤박람회에서 '제주 삼촌 선발 대회'를 진행합니다. 수상자에게 큰삼춘, 셋삼춘, 족은삼춘 상을 부여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또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대, 여, 도외)

**답** 보통 아들, 딸 여럿이 있을 때 '큰–, 셋–, 족은–'으로 쓰기는 합니다. '첫째의, 둘째의, 막내의'라는 의미이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삼춘, 셋삼춘, 족은삼춘'으로 쓰시면 됩니다.

## 53

**문** '검질메는 소리' 또는 '검질매는 소리', '메다'의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30대, 여, 도내)

**답** '메다'는 'ㅖ'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어사전》에 '검질메다'가 표제어로 올라 있습니다.

## 54

**문** ‘같이 알아보카?’를 제주어로 어떻게 표기하나요?(고○○, 30대, 여, 도내)

**답** ‘ᄀᆞ치 알아보카?’라고 쓰시면 됩니다.

## 55

**문** ‘말하겠으니’의 뜻인 ‘골으크메’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30대, 여, 도내)

**답** ‘말하다’의 의미인 제주어 ‘ᄀᆞᆯ다’는 아래아가 있는 ‘ᄀᆞᆯ다’가 기본형입니다. ‘ᄀᆞᆯ으크메’라고 쓰시면 됩니다.

## 56

**문** 《제주어 나들이》 책을 사서 보았는데 이 책을 보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20대, 남, 도내)

① 선어말어미가 ‘-영-/-연-’ 대신에 ‘-읭-/-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예: ‘ᄒᆞ읭’, ‘ᄒᆞ음수다’) 이것도 맞는 표기인가요? 둘 중에 무엇이 더 올바른 표기인가요?

② 1번과 연결되는 의문점인데 ‘ᄒᆞ엿수다’도 ‘ᄒᆞ읏수다’로 적혀 있었습니다.

③ 보통 ‘라고’의 인용형은 ‘ㅐ’ 표기의 ‘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는 전부 ‘ㅒ’ 표기의 ‘랜’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젠’도 전부 ‘잰’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이 맞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던 것이 맞는 것인가요?

④ ‘아들’을 뜻하는 제주어가 어디서는 ‘아덜’, 또 어디서는 ‘아

돌'이라고 하던데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맞나요?

⑤ 이 책에서는 '올레'를 '올래'라고 적었던데 어느 것이 맞는 표기인가요?

**답** ①과 ② 모두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③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주어 표기법」이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④ 둘 다 맞습니다. 발음이 'ㅓ'로 나면 '아덜'로 'ㆍ'로 나면 '아돌'로 봅니다.

⑤ 둘 다 맞습니다. '오래'가 《표준어국어대사전》에도 있고 고어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래'가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제주어에서 2음절 이하에서는 'ㅐ'나 'ㅔ'가 변별력이 없으므로 보통 'ㅔ'로 적은 '올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57

**문** 아래의 어휘와 문장들의 표기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50대, 여, 도내)

**답** 표기 수정한 내용을 표로 전달합니다. 두 가지로 제시된 것은 두 개 다 가능한 표기임을 뜻합니다.

| 감수 요청 내용 | 감수 확인 |
|---|---|
| 해신디 | 헤신디/헷인디 |
| 촐눌 | 촐눌 |

| 감수 요청 내용 | 감수 확인 |
| --- | --- |
| 읽으쿠다 | 익으쿠다 |
| 숨어나수다 | 숨어나수다/ 숨어낫수다 |
| 있어수다 | 이섯수다/ 잇엇수다 |
| 죽었덴 | 죽엇덴 |
| 둥굴리멍 | 둥굴리멍 |
| 총 쏘잰허난 안경도<br>벗으랜 한 모양이라예 | 총 쏘젠 허난 안경도<br>벗으렌 헌 모냥이라예 |
| 안경으로 시신을<br>찾았댄마씨 | 안경으로 시신을<br>춪앗덴마씨 |
| 우리 시어머니가 말햅디다 | 우리 씨어멍이 말헙디다/<br>우리 씨어멍이 굴읍디다 |
| 이제도록 살아졌댄<br>말해났쪄 | 이제도록 살아졋덴 말헤낫저/<br>이제도록 살아졋덴 굴아낫저 |
| 자손들 잘 돌봐줍센 하고 | 즈손덜 잘 돌봐 줍센 허고 |
| 이제라그네 | 이제라근에 |
| 힘차게 댕겨시믄 좋으크라 | 심차게 둥겨시믄 좋으크라/<br>심차게 둥겻이믄 좋으크라/<br>힘차게 댕겨시믄 좋으크라/<br>힘차게 댕겻이믄 좋으크라 |
| 우리가 셋아들이거든요 | 우리가 셋아덜이라마씨 |
| 동백꽃으로 다시 피어나랜 | 돔박고장으로 뚜시 피어나렌 |
| 좋앙 | 좋앙 |

## 58

**문** 이모티콘 개발과 관련, 제주어 사용이 올바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성○○, 알 수 없음)

**답**

| 감수 요청 내용 | 감수 확인 |
|---|---|
| 알안.(알았어.) | 알안./알앗저.(알았어.) |
| 가젠?(갈래?) | 가젠?(갈래?) |
| 대정에 와봅서양.<br>(와보세요.) | 대정에 와 봅서양.<br>(와 보세요.)<br>**※ 대정으로 와 보세요.→**대정더레 와 봅서양./대정드레 와 봅서양./모실포레 와 봅서양. |
| 모르맨?(모르니?) | 몰르멘?(모르니?)<br>**※ (그 사람 그것도) 몰르멘?**<br>(너는 이것도) 몰르크냐?/몰란?/몰라시냐?<br>'모르다'의 제주어는 '몰르다'로 위에 제시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쓰느냐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잘 지냄수꽈?<br>(잘 지내니?) | 잘 지냄수꽈?/잘 지냄수과?<br>(잘 지내니?)<br>※ 발음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수꽈'와 '-수과'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멜 들었져!<br>(멸치 들어왔다!) | 멜 들엇저!<br>(멸치 들어왔다!) |
| 무사?(왜?) | 무사?(왜?) |
| 가맨.(가고 있어./간다.) | 가멘.(가고 있어./간다.) |
| 기!?(그래!?) | 기?(그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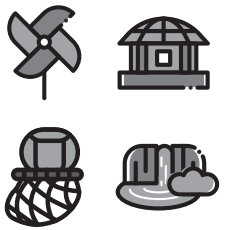
## 59

**문** 제주어 표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10대, 여, 도내)

**답**

| 감수 요청 내용 | 감수 확인 |
|---|---|
| 2022년 올 한해도<br>건강합서예 | 2022년 올 한 해도 건강협서예. |
| 새해 복 하영 받읍서예 | 새해 복 하영 받읍서예. |
| 제주 4·3사건<br>기억하겠수다 | 제주 ᄉᆞ삼사건 똑 기억허쿠다./제주 ᄉᆞ삼사건 잊어불지 안허쿠다. |
| 햇살광 ᄇᆞ람이 술술<br>불어오는 곶자왈로<br>와봅서예. | 벳살 뚜뜻허게 비치곡 ᄇᆞ름 술술 불어오는 곶자왈드레 옵서. |
| 수국처럼 함께일 때가<br>더 하영 아름답수다. | 도체비고장추룩 ᄒᆞᆫ디 모다정 이실 때가(잇일 때가)<br>더 고운 거라마씸. |
| 호~잇!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들려오는 제주바다,<br>같이 가보젠마씸? | 호잇! 줌녜덜 숨비소리가 들려오는 제주바당,<br>ᄀᆞ찌(ᄀᆞ치) 가 보젠마씸? |
| 여름처럼 열정적인 하루<br>됩서양 | ᄋᆞ름추룩 열정적인 ᄒᆞ루 됩서양. |
| 온 가족과 화목ᄒᆞᆫ 시간<br>보냅서 | 가족 ᄆᆞᆫ딱이영 화목ᄒᆞᆫ 시간 보냅서. |
| ᄒᆞ끔은 흔들려도 괜찮수다 | ᄒᆞ꼼은 흥글흥글헤도 궨차녀마씸. |
| 올 한해도 폭싹 속았수다 | 올히도 하영 속앗수다. |

# 5. 어원과 지명



## 1

**문** '조록나무'의 '조록'이 '자루', '손잡이'를 뜻하는 말인가요?(○○○, 50대, 여, 도외)

**답** '조록나무'는 제주에서 '조록낭', '조레기낭'이라고 불리는데 '손잡이'를 뜻하는 제주어가 'ᄌᆞ록'으로 발음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우철의《한국 식물명의 유래》(2005:459)나 조민제 등의《한국 식물 이름의 유래》(2021:836)에 따르면 '조록나무' 잎에는 벌레혹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조롱(박)'과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2

**문** 구실잣밤나무의 제주어가 '저밤낭', '제밤낭', 'ᄌᆞ밤낭', 'ᄌᆞ베낭', '새불밤낭'이라고 한다는데 어원, 뜻은 무엇인가요?(이○○, 50대, 여, 도외)

**답** '구슬잣밤나무'를 제주에서는 'ᄌᆞ밤낭', 'ᄌᆞ베남', 'ᄌᆞ베낭'이라고 합니다. 'ᄌᆞ밤낭'에서 'ᄌᆞ밤'은 구슬잣밤나무의 열매를 이르는 말로, 열매 크기가 작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무는 '낭', '남' 등으로 나타납니다.

## 3

**문** '빙떡'의 어원은 무엇인가요? 빙빙 말았다고 해서 '빙떡'이라고 하나요?(○○○, 알 수 없음, 남, 도내)

**답** '빙'은 한자어 '병[餠]'의 변음으로 떡을 의미합니다. 제주에서는

'빙'이라고도 하고 '빙떡'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빙떡'은 '빙'+'떡'으로 '떡'의 의미가 중첩된 것입니다. '빙빙 말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4

**문** 제주어 방위명을 알기 위해서《제주어사전》에서 제주어의 바람 이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나온 내용들을 분류해 보니 다음과 같더라고요. 제주어의 순수한 방위 명칭을 알고 싶어서 찾아본 것인데 의문점만 늘어나서 질문드립니다.(○○○, 20대, 남, 도내)

- 서풍: 갈-ㅂ름, 늦-ㅂ름, 섯-갈, 섯갈-ㅂ름
- 동북풍: 놉샛-ㅂ름, 놉-ㅂ름, 놉새, 놉-하니, 놉하니-ㅂ름
- 동남풍: 동마-ㅂ름, 든샛-ㅂ름
- 남풍: 마-ㅂ름
- 동풍: 샛-ㅂ름
- 서남풍: 늦-ㅂ름, 든마-ㅂ름, 섯마-ㅂ름
- 서북풍: 놉-하니, 늦하니-ㅂ름, 섯-하늬, 섯하니-ㅂ름
- 북풍: 하니-ㅂ름

① '늦-ㅂ름'의 뜻이 '서풍', '서남풍'처럼 두 가지 다른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서풍', '서남풍' 중 '늦-ㅂ름'은 무슨 뜻으로 더 많이 쓰이나요?

② '놉샛ㅂ름'의 '놉'은 무슨 뜻인가요? '샛'은 '샛ㅂ름(동풍)'이어서 동쪽이라는 건 알겠는데 '놉'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③ '놉-하니', '놉하니-ᄇᆞ름(동북풍)'과 '놉-하니[2](서북풍)'라는 두 용례가 있던데 '하니-ᄇᆞ름'이 '북풍'을 뜻하는 것이 맞다면 '놉'은 '동쪽'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문제는 '놉-하니[2]'가 의문스러워집니다.

④ '놉샛-ᄇᆞ름'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놉'+'하니'가 '동북'(또는 '서북')이면 '놉'은 '동쪽', '하니'는 '북쪽'이라는 의미인데 정작 동북풍을 이르는 어휘 가운데 '놉'+'샛'+'ᄇᆞ름'이라는 어휘가 있고 또 '샛-ᄇᆞ름'이 '동풍'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동북 쪽과 서북 쪽은 방향 자체가 반대인데 어째서 '놉-하니'라는 한 단어가 《제주어사전》에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하나 찾아본 《제주어사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놉샛-ᄇᆞ름: 동북-풍(東北風) [노형 인성 하원 화순 태흥 표선 수산 조천 어도]=놉-ᄇᆞ름, 놉새, 놉-하니, 놉하니-ᄇᆞ름
- 놉-하니[1]: [이호]→놉샛-ᄇᆞ름
- 놉-하니[2]: [세화]→서북-풍

**답** 제주어의 바람 명칭은 숙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풍'은 '샛바람', '서풍'은 '갈바람', '남풍'은 '마파람', '북풍'은 '하늬바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 또는 '샛'은 동쪽, '갈'은 남쪽, '마'는 남쪽, '하늬'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이 바람 이름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이름이

‘하늬’입니다. ‘하늬’는 지역에 따라서 북쪽을 의미하기도 하고, 서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놉’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늬’는 지역에 따라서 서풍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현지 조사 결과 우도에서는 ‘하늬바람’을《표준국어대사전》에서처럼 ‘서풍’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화에서 조사된 ‘놉하니’가 ‘서북풍’을 가리킨다는 의문점은 풀릴 듯합니다. 이는 세화에서 ‘하늬바람’을 서풍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이호 지역의 ‘놉하늬’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더 조사해 보아야겠지만, 이는 확인이 필요한 바람 이름 같습니다. 아직까지 ‘샛(새)바람’을 동풍 이외의 말로 조사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어사전》의 바람 이름은 지역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데 올리다 보니 여러 가지 명칭이 중첩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 이름은 제주와 육지의 경우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바람 명칭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도 가끔 ‘북서풍’을 ‘하늬바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람 이름에 대해서는 조사 지점을 넓혀 체계적인 확인 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한 뒤 세세하게 분류하고 뜻풀이를 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

**문** 남원의 옛 지명은 '재사니'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제산이', '저산이'라고 합니다.

※《남제주군고유지명》 등에는 '재산이', '재산잇개' 등으로 나타납니다.

## 6

**문** 남원읍 태흥리에 '우도 동산'이 있는지요?(○○○, 40대, 여, 도내)

**답** 남원읍 태흥리에서 '우도 동산'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우도 동산'은 우도에 있는 것만 확인됩니다.

## 7

**문** 'ᄉᆞ나의'+'아의'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ᄉᆞ나이놈'은 '놈'의 비칭이 아닌가요?(박○○, 20대, 남, 도내)

**답** 제주에서 'ᄉᆞ나의아의'처럼 사용하는 예는 보이지 않으며 'ᄉᆞ나아의' 정도는 나타납니다. '놈'은 중세어에서 평칭으로 '사람'의 의미로 쓰이던 것이 현대어에 와서 '비칭'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로 '놈'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놈'이 결합했다고 해서 모두 비칭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사나이'의 옛말은 'ᄉᆞᅀᅡ히'(《석보상절》(1447, 19:14))입니다. 《구급간이방언해》(1489, 2:52)에 'ᄉᆞᆫ아히'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ᄉᆞᆫ아히'는 'ᄉᆞᆫ+아히' 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ᄋᆞ히'는 '아이'이기 때문에 'ᄉᆞᆫ'이 문제입니다. 《훈몽자회》나 《천자문》(광주본)의 '정(丁)'을 'ᄉᆞᆫ 뎡'이라 한 것을 보면 'ᄉᆞᆫ'은 '장정(壯

丁)'의 뜻을 지닌 어휘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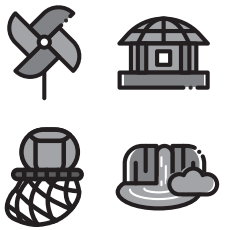
## 8

**문** '짐서 머를'이라는 지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짐서머를'의 '짐서'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머를'은 'ᄆᆞ루'와 같은 의미로 등성이나 주변보다 높은 지대를 말합니다. 'ᄆᆞ르', 'ᄆᆞ를'이라고도 합니다.

ᄇᆞ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 6. 문법과 발음



## 1

**문** ‘ᄒᆞ엿젠’과 ‘ᄒᆞ엿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대, 남, 도내)

**답** ‘ᄒᆞ엿젠’과 ‘ᄒᆞ엿덴’의 차이는 종결어미에 있습니다. ‘-젠’은 ‘-저+엔(인용격)’, ‘덴’은 ‘-다+엔’ 구성입니다. ‘ᄒᆞ엿젠’은 ‘ᄒᆞ엿저+엔’의 구성이기 때문에 종결어미는 ‘-저’이고, ‘ᄒᆞ엿덴’은 ‘ᄒᆞ엿다+엔’의 구성이기 때문에 종결어미는 ‘-다’입니다.

## 2

**문** ‘밭’을 의미하는 ‘밧/왓/팟’은 어떻게 다르게 쓰이나요?(이○○, 40대, 여, 도내)

**답** ‘밭’을 의미하는 제주어는 ‘밧’입니다. 그러나 이 ‘밧’이 합성어를 이룰 때는 ‘밧’은 물론 ‘왓’ 또는 ‘팟’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왓’과 ‘팟’은 ‘밧’처럼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앞말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밧’과 ‘왓’은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합니다. 즉 ‘산디왓’, ‘촐왓’도 쓰지만 ‘산디밧’, ‘촐밧’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팟’은 대개 앞말이 ‘ㅎ’을 가진 말 또는 단어의 합성 과정에서 ‘ㅎ’이 덧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영팟’, ‘드르팟’, ‘모멀팟’, ‘조팟’ 등이 있습니다.

## 3

**문** ‘밭’이라고 하지 않고 ‘밧’처럼 받침을 ‘ㅅ’으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 40대, 여, 도내)

**답** ‘밭+에’→[바테]라고 발음하지 않고, [바세]라고 발음하므로

받침은 'ㅅ'을 씁니다.

※ 체언의 기본형을 정할 때는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를 연결해서 발음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바치]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밭'이 됩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은 [바시]라고 발음합니다. 발음 [바시]는 '밧+이'므로 기본형은 '밧'이 되는 것입니다.

## 4

**문** 《제주어사전》에서 향진격 조사를 찾아보면 모음 또는 받침 'ㄹ'이나 받침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는 '러레'가 결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의 예시를 더 들여다 보면 '물더레', '밧더레' 등과 같이 설명과 맞지 않은 형태가 제시되어 있어 왜 그런지 의문이 듭니다. 제주어의 향진격 조사를 사용할 때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는 '레',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는 '더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또한 제주어에서 인정되는 문법인지 궁금합니다.(○○○, 20대, 남, 도내)

참고로 제가 《제주어사전》에서 찾은 형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밧', '끗'+드로
- '뒤'+터레
- '안', '우', '서', '내'+터레/트레
- '안', '바꼇', '우'+트로
- '안', '우'+틔레
- '서', '알', '서월', '물', 'ᄀᆞ를', '돌', '질', 'ᄆᆞᆯ'+러레

**문** 제주어는 구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맞는 형태끼리만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어떠한 형태로 결합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드레/더레/디레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러레/레레/르레
- 특수 어휘 '안(ㅎ), 우(ㅎ), 내(ㅎ), 뒤(ㅎ)'+드레/더레/디레

대개는 위와 같지만 '물러레/물더레', '질레/질러레/질더레', '바지레/바지더레'처럼 혼용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 5

**문** 《제주어사전》에서 처소격 조사에 관련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의'는 '집', '바당', '앞', '옆', '밤', '낮'과 연결된다고 하고, '틔'는 '우', '밋', '끗', '안' 등과 연결된다고 하며 '긔'는 '낭', '박'과 연결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듸'는 '밧', '바깟', '솟' 등에 연결된다고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듸'는 'ㅅ'으로 끝나는 모든 단어 뒤에 사용될 수 있나요?(○○○, 20대, 남, 도내)

**답** 제주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체언+에
- 일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 일부 'ㅅ'으로 끝나는 체언+듸

• 특수 어휘 '우(ᄒᆞ), 안(ᄒᆞ)' 등의 체언+듸>틔

• 특수 어휘 '낭[木]-낡', '박[外]-밖' 등의 체언+의(긔)

먼저 처소격 조사 '듸' 또는 '디'는 'ㅅ'으로 끝나거나 'ㄷ' 등으로 끝나는 단어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낭'과 '박'은 중세국어의 'ㄱ' 곡용 체언으로,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단어입니다. 한편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보통 처소격 조사를 생략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주어사전》 등에서 특정한 단어와 결합한다고 예시를 보여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주어는 구어이기 때문에 문법에 맞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6

**문** '학교에'를 제주어로 나타낼 때 '학교의'처럼 처소격 조사 '의'를 쓰나요?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붙여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0대, 남, 도내)

**답** '학교' 다음에 처소격 조사를 사용한다면 '의'보다는 '에' 형태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 7

**문** 제주어의 유래격 조사 '서'는 어떨 때 사용되나요? 유래격 조사도 받침으로 끝나는 것, 모음으로 끝나는 것에 따라서 형태가 달

라지나요?(박○○, 20대, 남, 도내)

**답** 유래격 조사라고 하면 움직임이 시작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로 보통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실현 환경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처소격, 향진격, 대격이라는 말로 쓰기는 했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표준어의 부사격 조사 '에서'는 제주에서는 '의서/이서', '서', '에서'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의서/이서'는 특이한 몇 개의 단어에서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집의서/집이서', '바당의서/바당이서', '앞의서/앞이서' 등과 같습니다. '듸서'도 역시 몇 개의 단어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는데 '밧듸서', '갯フ듸서'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서'와 '에서'는 앞에 오는 단어가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으며 둘 다 사용됩니다. 구어체에서도 부사격 조사 '에서'를 '서'로 줄여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일이며 제주에서는 '에서'보다는 '서'를 더 선호하는 것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서'보다는 '제주서'를, '학교에서'보다는 '학교서'가 더 자주 쓰는 것입니다.

## 8

**문** 《제주어사전》에 제시된 주격 조사에 대한 자료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주어사전》의 '도[3]', '라[1]', '라[2]', '에서', '이[4]'가 모두 주격 조사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이 주격 조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남, 도내)

**답** 《제주어사전》의 조사와 어미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문법에서는 보조사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므로 격조사라고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어대사전》 발간을 추진하면서 조사와 어미 부분은 많은 논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먼저 '도[3]'는 주격, 호격, 여격, 목적격의 자리에서 격조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보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나도 가키여.'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또한 '도'는 감탄문에도 사용되는 보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날씨도 좋구나.'와 같은 문장에서의 기능을 보면 됩니다.

② 드물게 나타나지만 '라[1]'가 주격 조사 '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게라 나신듸 경 골을 수 이서?'나 '손지라 서월 간덴 ᄒᆞ여라.'에서의 '라'가 그렇습니다.

③ 주어가 복수인 경우 주격 조사로 사용되는 '라[2]'입니다.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노년층의 발화, '너희들 일곱 성제라 신을 ᄒᆞᆫ 베씩 삼아도라.'와 같은 문장에서 그 쓰임을 드물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④ '에서'는 표준어에서도 주격 조사로 사용되는 조사입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나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주로 단체가 주어일 때 사용됩니다.

⑤ '가'는 받침이 없는 체언에, '이'는 받침이 있는 체언에 붙는

주격 조사이나 제주에서는 이것이 교차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ᄒᆞ나이 족아 베다(하나가 작아 보인다).'나 '느 것가 어느 거고?(네 것이 어느 것이니?)'와 같은 문장처럼 말입니다.

## 9

**문** '너희(네) 아버지'라는 의미로 '느 아방'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30대, 여, 도내)

**답** '너희 아버지'일 경우 '느네 아방'이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네'는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만일 '느 아방'이라고 했다면 '네 아버지'라고 표준어로 대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0

**문** 《제주어사전》에 상대격 조사 'ᄀᆞ라'를 봤는데, 이 조사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요?(○○○, 20대, 남, 도내)

**답** 《제주어사전》에 제시된 조사 'ᄀᆞ라'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로, 표준어에서 쓰이는 조사 '더러' 또는 '보고' 등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표준어 '더러'와 '보고'가 쓰이는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 11

**문** '나무위키'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하였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

니다.

> 제주어에서 대상이 없는 자리에서는 보통 '−앙/−엉' 계열인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을 쓰며, 눈앞에서 얘기를 나눌 때는 보통 '−앙/−엉' 계열을 사용하지 않고 관계에 따라 호칭을 달리한다. 그 예는 '하르바지, 하르바님, 하라바님, 하르비, 하리비'가 있다.
> 즉, '−앙/−엉' 계열은 대상을 가리키는 지칭이며, 그 외는 대상을 눈 앞에서 부르는 호칭 표현이다. 이 둘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손주가 할머니보고 '할망!'이라고 부르면 콩가루 집안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남에게 자신의 할머니를 표현할 때는 '우리 할머니는…'이 아니라 '우리 할망은…'이라고 한다.

표 안에 제시된 이 서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대, 남, 도내)

**답** '지칭'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며, '호칭'은 어떤 대상을 부르는 말입니다. '할망'을 예로 들면 '할망'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를 부를 때는 '할머니', '할머님'이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이를 때 '할망'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칭으로 사용될 때는 '할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12

**문** 《제주어사전》에서 선어말어미 '−아−'와 종결어미 '−어[1]'에 대

한 설명 중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어간에 붙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제시된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이 무엇인지요? 이것이 모음조화인지 몰라서 여쭙니다.(○○○, 20대, 남, 도내)

**답** 《표준국어대사전》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전에 따르면 '양성 모음'은 '어감(語感)이 밝고 산뜻한 모음. 'ㅏ', 'ㅗ', 'ㅑ', 'ㅛ', 'ㅘ', 'ㅚ', 'ㅐ' 따위가 있다.'로, '음성 모음'은 '어감(語感)이 어둡고 큰 모음. 'ㅓ', 'ㅜ', 'ㅕ', 'ㅠ', 'ㅝ', 'ㅟ', 'ㅔ' 따위가 있다.'로 설명합니다. 제주어에서도 이 설명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아(ㆍ)는 양성 모음으로 분류합니다.

## 13

**문** '줄어들지 않으카마씸.', '중요한 것 닮아마씸.'과 같은 문장에서 '-마씸'을 다르게 바꿀 수 있나요?(고○○, 30대, 여, 도내)

**답** '-양, -예'를 쓰거나 '-수다'를 쓸 수 있습니다. '줄어들지 안허카예.' 혹은 '줄어들지 안헐 거 닮다예.', '중요헌 거 닮수다.' 혹은 '중요헌 거 닮은게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14

**문** 'ᄉᆞ망인다' 발음 시 'ㅗ'에 가깝게 발음하나요? 아니면 'ㅏ'에 가깝게 발음하나요?(홍○○, 20대, 여, 도외)

**답** 'ᄉᆞ망일다'의 'ᄉᆞ망'은 '좋은 운수'의 뜻을 지닌 말로, 옛말 'ᄉᆞ망[市利]'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ᄉᆞ망일다'의 'ᄉᆞ망'

의 발음은 [ㅅ망]이라고 해야 합니다. '스망일다'뿐만 아니라 제주어에서 '아래아(ㆍ)'가 들어간 단어는 'ㅏ'보다는 'ㅗ'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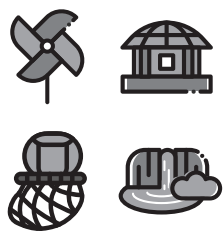
## 15

**문** '난 니가 죽언,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자기 주장을 못 합니다.'라고 들었는데 '니가'는 '기가'가 맞나요?(○○○, 40대, 여, 도내)

**답** 문맥으로 보면 '니가 죽언'은 '기가 죽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가'가 '니가'로 발음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들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ᄇᆞ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 7. 기타



## 1

**문** ‘거니까’는 제주어인가요? 표준어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접속부사 ‘그러니까’를 말하는 것이라면 제주에서는 ‘경ᄒᆞ다’에 ‘-으난’이 연결되어 ‘경ᄒᆞ난>게난’ 또는 ‘거난’으로 나타납니다. 제주어에서 ‘-니까’를 쓰지 않으므로 ‘거니까’는 표준어 ‘그러니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2

**문** ‘그런데’의 의미로 ‘근디’를 쓰면 안 되나요?(○○○, 30대, 여, 도내)

**답** ‘그렇다’의 제주어가 ‘경ᄒᆞ다’이므로 ‘경헌디’, ‘겐디’, ‘견디’, ‘건디’ 형태로 나타나며 표준어의 영향으로 ‘근디’가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디’는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 3

**문** ‘거’는 표준어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혹은 ‘그거’의 줄임말로 표준어이면서 제주어입니다.

## 4

**문** ‘그거 얼마, 거.’라고 했는데 ‘거’는 ‘거야’의 줄임말로 쓰는 제주어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거’는 지시대명사로, 표준어이면서 제주어입니다. ‘거’는 ‘그거’의 줄임말입니다.

## 5

**문** '그러면은', '언니야는'은 제주어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표준어 혹은 다른 지역 방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6

**문** '-하잖아'의 의미로 '하잖'을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제주어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전통적인 방언학의 입장에서는 제주어가 아닙니다. 제주어란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방언학 입장에서는 제주어입니다. 사회방언학은 성별, 나이, 세대 등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언어를 살피는 방언학의 한 유형입니다.

## 7

**문** '내가 간 골목마다 쓰는 게 있더만은'에서 '쓰는 게 있더만은'을 '사용하는 게 있더만은'이나 '사용하는 게 있더만'으로 대역해도 되나요?(○○○, 알 수 없음, 도내)

**답** '있더만은'은 제주어는 아닙니다. '있더만', '있더만요'는 경상도 쪽 방언인 것 같습니다. '있더군요+그렇지만', '있더니+만은' 정도로 이해됩니다. 또한 '쓰다'를 굳이 '사용하다'로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8

**문** 제주에서 많이 쓰는 '잘도'는 한자어인가요?(○○○, 30대, 남, 도내)

**답** 한자어는 아닙니다. 표준어 '매우'와 같은 의미로 부사 '잘'에 조사 '도'가 합쳐진 말입니다.

## 9

**문** '미깡'은 일본 잔재가 남아 있는 제주 방언인가요?(○○○, 40대, 여, 도내)

**답** '미깡(みかん: 蜜柑)'은 일본어입니다. '병귤'을 '벤줄', '벵귤', '귤나무'를 '귤남', '귤낭'이라 하는 것으로 보면 '귤', '줄'이라는 제주어가 있는 셈입니다. 제주는 1960년대 일본에서 밀감을 들여와 재배했습니다. 외래종인 밀감을 일본식으로 읽어서 '미깡'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주어는 아닙니다.

## 10

**문** 트라우마센터에서 소식지를 만드는데 제주어로 제호를 쓰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글과 그림들도 실을 건데 어떤 제호를 쓰면 좋을까요?(김○○, 40대, 여, 도내)

**답** '삼춘네'를 추천합니다.

## 11

**문** 제주 속담에 '쉐똥 꿈 꾸민이 ᄉᆞ망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출처는 어디로 기재해야 할까요?(홍○○, 20대, 여, 도외)

**답** 고재환의 《제주속담사전》이나 진성기의 《남국의 속담(제주도 속담집)》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쉐똥 꿈 꾸민 수망인다.'라는 속담을 본 자료를 출처로 제시하면 됩니다.

## 12

**문**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을 구할 수 있나요?(○○○, 40대, 여, 제주)

**답**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 '제주학 아카이브–언어–제주어'에서 《제주어사전》(2009)을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13

**문** 《제주어사전》과 같은 것을 구할 수 있나요?(○○○, 50대, 남, 도내)

**답** 개인이 쓴 제주어 사전은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9년에 발간한 《제주어사전》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제주어사전》(2009)을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14

**문** 《제주어사전》이나 관련 자료, 책 등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40대, 여, 도내(이주민))

**답** 《제주어사전》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어 관련 자료는 2020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제주어 길라잡이》의 '부록 1'

로 제시된 '제주어 관련 문헌 목록'을 참고하면 됩니다. 《제주어 길라잡이》 또한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발간한 책은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 15

**문** 표준어를 제주어로 대역한 사전 같은 것을 파일로 받을 수 없나요?(○○○, 60대, 남, 도외)

**답** 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어사전》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고, 책으로는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이 있는데 이것은 서점을 통해 구매를 하시거나 도서관 등에서 대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 16

**문** 제주어와 관련된 자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대, 남, 도내)

**답** 매품인 경우는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면 되고, 비매품인 경우는 발행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2020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제주어 길라잡이》의 '부록1'로 제시된 '제주어 관련 문헌 목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17

**문** 4월에 제주도에 내려가는데, 제주어의 억양을 배우고 싶어요.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30대, 여, 도외)

**답** 제주어 교육이나 강의는 주로 (사)제주어연구소, (사)제주어보전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등에서 개최를 합니다. 현재는 강의 일정이 계획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18

**문** 제주어 교육을 제주어종합상담실에서 진행하기도 하나요?(온○○, 알 수 없음, 남, 도내)

**답** 제주어종합상담실에서는 제주어 상담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및 청소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는 (사)제주어연구소, (사)제주어보전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등이 있습니다.

## 19

**문** 제주 사투리의 기록 및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인터뷰를 하시나요?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은 회사 소속 연구자를 말하는 건가요?(○○○, 30대, 여, 도외)

**답** 방언 수집은 직접 조사를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 질문지에 따라 질문하며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음성 녹음은 필수이며, 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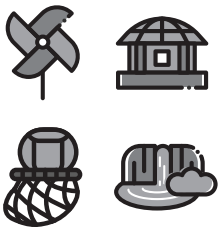
촬영 등 영상 자료까지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전문가란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인 경우는 각 분야별 전문 연구 인력이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

**문** 제주어 조사를 나갈 때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시된 책이나 자료가 있나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누리집에 있나요?(○○○, 30대, 여, 도외)

**답** 조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방언 조사라고 하면 80대 이상 어른을 제보자로 하는 것이 좋고, 사회 방언 조사라고 하면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방언 조사를 할 경우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에서 발간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 등을 참고하거나 이익섭의 《방언학》이나 방언연구회의 《방언학사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찾아보기



ㄱ

가달 21
가린작데기 19
가멘 117
가심 32
가심소곱 73
가젠 117
가차이 54
각록 33
갈르다 32
갈ᄇᆞ름 121
갈입낭 29
감저 43
감저밥 43
감제 43
감ᄌᆞ 43
개미 27
개미장 27
개헤치 31
갯ᄀᆞᆺ듸서 132
거난 140
거린작데기 19
거릿댕이 19
걱죽 19
건드럽다 83
건디 140
걸으멍 108
검질메는 소리 113
겁질 19
게게 35
게곡 25
게석 21
게숨 85
게숨다리 85
게숨허다 85
게슴다리 85
게슴하다 85
게움 85
게움다리 85
겐디 140
견디 140
경 62, 96
경허게 76
경허곡 25, 99
경헌디 140
경ᄒᆞ다 140
고단이우다 58
고동 48
고름베기 112
고맙수다 54, 55
고슬다 83
고습다 83
고장 25, 63
고즐멩이 47
고지 66
고질멩이 47
고짝허다 20
곧작허다 20
곱다 95
곱닥헌 66
곳 25
곳다 83
곶 66
곶자왈 118
과랑과랑 39
구제기 34, 47, 48
구젱기 47, 48
구젱기닥몰 34
구젱기닥살 34
구젱이 47, 48
구젱이닥살 34
구짝허다 20
굳작허게 64
굳작허다 20
궤기 67
궤깃반 71
궤다 87
궨차녀마씸 118
귀눈 99
귤남 142
귤낭 142
그만썩 28
그만이 28
글채 24
금세ᄒᆞ다 88
긔 130
기 117
기곗공장 27
기곗방 27
기리다 83
기부허다 21
기부ᄒᆞ다 21
기여 36
기집 20
기집아이 20
ᄀᆞ뜨다 100
ᄀᆞ라 101, 134
ᄀᆞ를 129
ᄀᆞ만잇자 36
ᄀᆞ찌 118
ᄀᆞ치 114, 118
ᄀᆞ트다 100
ᄀᆞᆫ다 66, 105, 114
ᄀᆞᆯ아 줍서 105
ᄀᆞᆯ으크메 114

ᄀᆺ 80
ᄀᆮ다 100
꺼정 29
껄 19
꼬메다 32
꼴리 19
꼿 25, 63
꼿 피엇다 83
꿩마농 88
끗 129, 130
끗다 32
ᄭᅡ장 29
ᄭᅵ지 29

ㄴ

나모 29
나야더리 36
남 29, 120
낡 131
남자 16
남펜 18
납띠 31
납헤치 31
낫다 110, 111
낭 29, 77, 94, 120, 130, 131
낭섭 19
낭썹 19
낭입 19
낭작데기 19
낭푼 22
낭푼이 22
내음살 64, 66
냄펜 18
너른 18
너이 16
널러지다 45
널른 18
넙은 18
네야다리 36
넹바리 89, 90
노념 28
놀래 66
놀멍놀멍 62, 64, 72
놀멍쉬멍 64, 72
놉 122, 123
놉ᄇᆞ름 121, 122
놉새 121, 122
놉샛ᄇᆞ름 121, 122
놉하니 121, 122, 123
놉하니ᄇᆞ름 121, 122
누게꽈 110
누게우꽈 110
느 74 , 89, 134
느긋허게 65
느네 74, 134
느네덜 67
늦ᄇᆞ름 121
늦하니ᄇᆞ름 121
늬 19
늬빨 32
니 19
닐 60, 68
닐모리 88
닛 16
ᄂᆞ누다 21
ᄂᆞ단 33
ᄂᆞ시 99
ᄂᆞᆷ삐 27
ᄂᆞᆸ하니 122
ᄂᆞᆺ다 100

ㄷ

다슴아방 77
다슷 16
다숫 16
닥살 34
달르다 102
담다 101
대수왈 44
대오살 44
대우살 44
더레 130
덜러운 33
데러운 33
데멩이 19
데싸지다 45
도 132, 133
도갓몰리 19
도깨 43
도라 97
도레기 42
도새기헤치 31
도체비고장 118
도치 88
독 19
독머리 19
독무럽 19
독무리 19
독ᄆᆞ릅 19
독ᄆᆞ리 19
독ᄆᆞ립 19
독ᄆᆞ롭 19
독몰리 19

돔박고장 116
돗헤치 31
동마ᄇᆞ름 121
동티 79
동티가 나다 79
두 불 50
두덥다 18
두둡다 18
두리다 48
두텁다 18
둥굴리멍 116
둥글다 22
뒈싸지다 45
뒌장 27
뒤여지다 45
뒷녁날 66
드레 130
드로 129
드르팟 128
든마ᄇᆞ름 121
든샛ᄇᆞ름 121
듸 130
듸서 132
디레 130
ᄃᆞ리 21
ᄃᆞ헤치 31
돋다 102, 103
돌 129
돌랑돌랑 34
돌마기 16
돌메기 16
돌으멍 102
돌체 90
돌코롬 49
돌코롬허다 49
돌콤헌 66
돌크름허다 49
돔다 101
ᄃᆞᆺᄃᆞᆺᄒᆞᆫ 64
딱살 34
또시 25
똑 37, 65, 72, 74
똥소로기 46
똥솔레기 46
똥수레기 46
뜰리다 102
ᄯᅳ나다 102
ᄯᅳ난 58
ᄯᅳ뚯허게 56, 118
ᄯᅳ뚯헌 57, 63, 69
ᄯᅳ뚯ᄒᆞ게 54
ᄯᅳ시 116
뚤 67
뚤르다 37

ㄹ

라ˈ 132, 133
랴ˊ 132, 133
랑 88
러레 129, 130
레레 130
렌 95
르레 130

ㅁ

마 36
마농지 43
마농지시 43
마농지이 43
마ᄇᆞ름 121
막 36
막당이 19
막데기 19
막뎅이 19
만헌 63
말다 36
말젯- 45
맛싯게 71
맛좋게 71
맞초다 101
매우롱허다 49
맵지근허다 49
맵지랑허다 49
맵지롱 49
맵지롱허다 49
머력 30
머를 125
머리광 76
머리까락 19
머리꺼럭 19
머리껄 19
머리껍 19
머릿니 87
메 36
메께 36
메께라 36, 104
메다 113
메록 36
메시께라 104
멜 들엇저 117
멩심허다 17
멩심ᄒᆞ다 17, 72
멩질 57

모다들엉 108
모다졍 118
모멀팟 128
몰라시냐 117
몰란 117
몰르멘 117
몰르크냐 117
몽글다 46, 88
묘위전 85
무끄다 32
무뚱 46
무럽 19
무사 70, 76, 117
무수 27
무신 99
무신거꽈 104
무신거우꽈 104
문짝ᄒᆞ다 48
문착ᄒᆞ다 48
물질 83
미르헤치 31
미리헤치 31
밀리다 32
밋 130
ᄆᆞ녀 68
ᄆᆞ루 125
ᄆᆞ르 103, 125
ᄆᆞ를 125
ᄆᆞ멀국시 105
ᄆᆞ심 54, 63, 64, 66, 69, 77
ᄆᆞ심소곱 73
ᄆᆞ작단추 16
ᄆᆞ치기 54
몬 89
몬딱 54, 56, 57, 58, 118
몬저 68
몰 64, 129
몰헤치 31

ㅂ

바꼇 129
바농 33
바당 130, 132
바당소곱 59
바당소리 70
바당알 59
바투리 46
박 130, 131
반지롱ᄒᆞ다 91
발르게 64
발른 33
밧 101, 102, 107, 128, 129, 130
밧 131
밧듸서 132
방엣간 27
방엣공장 27
방이왕 27
배 19
뱃줄 19
뱅글락 47
버렝이 19
버염 19
벌ᄆᆞ작 16
범헤치 31
벗덜 56
베 19
베렝이 19
베려보다 113
베롱허다 104
베롱ᄒᆞ다 104
베리다 113
베미 19
베염 19
베염헤치 31
베지근 49
베지근허다 49
베차기 44
베체기 44
벡토 91
벤 18
벤줄 142
벨라지다 92
벨롱겡이 90, 91
벨빗 70
벰 19
벵귤 142
보리탈 23
보십서 62
봅서 36
봅서예 62
부루 44
부수다 32
부으다 32
불리 25
불휘 25
불희 25
비우다 32
빕다 32
빗 60, 82
빙 120
빙떡 121
빙삭이 112
빙섹이 112

ᄇᆞ름 25, 96, 118, 121, 122
ᄇᆞ름도레기 38
ᄇᆞ롬 25
뿌렝이 19, 25
뿔리 19, 25
뽈다 20

ㅅ
사다 32
사름 58, 69, 74, 88, 111
사우 67
삭다리 42
산도록허다 29
산도록ᄒᆞ다 29
산도롱허다 29
산도롱ᄒᆞ다 29
산디밧 128
산디왓 128
산좌전 85
산책허다 66
살착문 17
살체기문 17
상긋헌 66
새 122
샛 122
샛ᄇᆞ름 121, 122
서 131
서능ᄒᆞ다 29
서월 129
서이 16
서채 24
석다 33
설 97
섬찌근ᄒᆞ다 45
섭 19, 29
섯갈ᄇᆞ름 121
섯마ᄇᆞ름 121
섯하늬 121
섯하니ᄇᆞ름 121
세미떡 50
시에 아이 110
셋- 113
셋삼춘 113
셋아덜 116
셍이 82
소곰 32
소곱 62, 63, 74
소나의 18
소도리 46
소레기 46
소로기 46
소분밧 85
속아수다 56, 105
속아수다에 106
속앗수다 56, 105
속앗수다에 106
손고락 33
솟 130
수종 91
수종다리 91
숨비소리 118
숨어나수다 116
숨어낫수다 116
쉐똥 142, 143
쉐헤치 31
시다 32
시엣아이 109, 110
시원허다 29
시원ᄒᆞ다 29
실렵다 83
심다 47
심차게 116
싯 16
ᄉᆞ나아의 124
ᄉᆞ나의 124
ᄉᆞ나이 76
ᄉᆞ다 32
ᄉᆞ망 136
ᄉᆞ망일다 136, 137
ᄉᆞ못 113
솔 97
솔가죽 19
솔갖 19
솔꼿 83
솔솔 118
솔카죽 19
쌉다 32
쌍아래아 23, 96
써능허다 83
써능ᄒᆞ다 29
썹 19, 29
씨어멍 116
씨원허다 29
씨원ᄒᆞ다 29

ㅇ
아가기여 36
아덜 115
아돌 115
아따 36
아래아 20, 96, 103, 104, 109, 111, 136, 137
아마넉들라 36

아방 134, 135
아부지 70
아옵 16
아의 20, 124
아이덜 68
아적 29, 66
아적까지 29
아적꺼정 29
아적ᄁᆞ장 29
아적ᄁᆞ지 29
아져오다 107
아척 66
아희 20
안녕허시우꽈 56
안녕허우꽈 56
안적꺼정 29
안적ᄁᆞ장 29
안직 29
안직까지 29
안직ᄁᆞ지 29
알 129
알녁집 111
알녁칩 111
알리다 50
알안 117
알앗저 117
야쏠 38
얄루다 18
얄룹다 18
양칩이 109
양푼이 22
양헤치 31
어멍 24, 135
어울엉 107
어취나 36
얼다 32, 83
엉 90
엉뎅이 28
엉둥이 28
엉장 90
엉치 28
엔 79, 95, 128
엥그리다 82
여름 19
여산 66
염소헤치 31
염쉐헤치 31
염헤치 31
엿말 27
영 75, 96
영허다 111
영헌 111
영ᄒᆞ다 111
영ᄒᆞᆫ 111
오게 40
오고셍이 39
오널 25, 55, 60, 62, 69, 71
오듯기 59
올래 17, 115
올르다 21
올히 56, 57, 118
와 봅서양 117
와랑와랑 40, 41
와수다 105
왁왁허다 99
왓 101, 102, 128
왓수다 105
왕왕작작 18
요만썩 28
요만이 28
요벤닥허다 58
요ᄒᆞ루기 66, 84
용헤치 31
우 129, 130, 131
우남 32
우영팟 128
우풍 30
울엉 89
원셍이헤치 31
으남 32
의 130, 131
의서 132
이 35
이김 112
이녁 58, 60, 74, 87, 113
(이)랑마랑 26
이만썩 28
이만이 28
이문 17
이서 132
이어도 사나 48, 78
이영허다 111
이영ᄒᆞ다 111
이예기 27
이와기 27
이왁 27
이우다 33
이추룩 99
익다 95
익으쿠다 95, 116
입 19, 29
ᄋᆞ 40
ᄋᆞ답 16
ᄋᆞ돕 16
ᄋᆞ돌 16

으름 118
으름 19
으망지다 96
으섯 16
으슷 16
으솟 16
윽다 23
을매 19

ㅈ

자리 츠지허다 24
작데기 19
작쉬 19
잘 지냄수과 117
잘 지냄수꽈 117
잘도 113, 142
잘콴다리 36
장개미 27
장칼 27
재기재기 71
재산이 124
재산잇개 124
저산이 124
절소리 70
절총박다 84
정 17
정남 17
정낭 17
정살 17
제산이 124
제월밧 85
제월전 85
제월제 85
제월지 85
제위전 85
제집 20
조끄락허다 87
조레기낭 120
조록낭 120
조심허다 17
조심ᄒᆞ다 17
조침앉다 39
조팟 128
족은삼춘 113
좁작ᄒᆞ다 18
좌락좌락 76
좌전 85
주제기 42
주젱기 42
주젱이 42
주지 42
죽엇덴 116
족은– 113
줄 142
줏다 108
중이헤치 31
줭이헤치 31
쥐헤치 31
쥥이헤치 31
지름고장 26
지름ᄂᆞ물 26
지슬 43, 44
지실 43, 44
지집 20
지집아이 20, 44, 45
지피 63
직허다 106
직ᄒᆞ다 106
진쉬 38
진시 38
짇을거 42
짇을커 42
질 129
짐 112
짓 19
짓털 19
ᄌᆞ록 120
ᄌᆞ르다 18, 20
ᄌᆞ밤 120
ᄌᆞ밤낭 120
ᄌᆞ베남 120
ᄌᆞ베낭 120
ᄌᆞ손 50
ᄌᆞ나비띠 31
졸르다 18, 20
좀녜덜 118
좀자다 20
째끌락ᄒᆞ다 48
쪼짝 82
쯔르다 18
쫄르다 18

ㅊ

천리 106
천천이 62, 72
촐눌 115
촐밧 128
촐왓 128
촘아방 77
추룩 26
칩이 109
촘말 58
촘말로 71

ㅋ

코삿허게 70
코삿헌 70
코삿ᄒᆞ다 89
코삿ᄒᆞᆫ 89
코소롱 50
코소롱허다 50
코시롱 50
코시롱허다 50
쿨 19
큰– 113
큰삼춘 113
클 73
클방 27
클빵 27

ㅌ

탕탕 34
터레 129
테 19
테역 19
토끼헤치 31
톳헤치 31
퉤끼헤치 31
트다 32
트레 129
트로 129
틀리다 102
틔 130
틔레 129
ᄐᆞ나다 102

ㅍ

팟 101, 102, 128
펜안히 70
폭삭 105, 106
푸다시 89
ᄑᆞ리똥 111
ᄑᆞ리춤 109, 111
ᄑᆞ리침 111

ㅎ

하늬 122, 123
하니 122
하니ᄇᆞ름 121, 122
하다 22
하따 36
하라바님 135
하르바님 135
하르바지 135
하르방 135
하르비 135
하릉방 27
하리비 135
하영 22, 57, 69, 71, 103, 104, 111, 118
하영덜 61
한 63
한탈 23
한탈낭 23
한한헌 63
할망 111, 135
할머님 135
허끄다 48
허다 94, 102
허십서 77
허쑹언 36
허염직이 80
험벅눈 34
협서 76, 99, 102
헤끄만허다 87
헤끌락허다 87
헤내기 54
헤신디 115
헤염치다 32
헷인디 115
현칩이 109
호렝이헤치 31
휘다 32
흘르다 32
흥글흥글 48
히엄치다 32
히염치다 32
힘치다 32
ᄒᆞ꼼 60, 67, 70, 99, 107, 108
ᄒᆞ꼼만 24, 99
ᄒᆞ끄락허다 87
ᄒᆞ끔만 24
ᄒᆞ나 16
ᄒᆞ나이 134
ᄒᆞ다 94, 102
ᄒᆞ루 58, 60, 63, 118
ᄒᆞ십서 77
ᄒᆞ썰만 24
ᄒᆞ쏠 48, 99
혼디 62, 64, 107, 118
혼디허곡 69
혼저 67
혼저 옵서예 76
혼저혼저 77
홉서 102

–게 108
–고데고 77
–고렌 101
–네 78, 134
–다리 91, 92
–라 108
–마씀 33, 108
–마씨 33, 108
–마씸 33, 108
–수다 136
–앙/–엉 95, 101, 135
–양 58, 59, 62, 136
–예 57, 59, 62, 95, 136
–으믄 95
–으민 95
–(허)단 26
–ᄒᆞ는디 107
–(ᄒᆞ)단 26

# 제주어, 궁금허거나 몰른 거 싯건 들어봅서양

## **제주어종합상담실**이 뭔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제주어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제주어 보전과 육성 조례'와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설립된 제주어 전문 상담 창구입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전화는 소중한 제주어가 누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어,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 있거든
물어 보십시오

## 어떻게 **이용하나요?**

**주요 업무** 제주어 관련 종합 상담
제주어 종합 상담 자료집 발간 등

**상담 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상담 방법**
- 상담 전화 **들어봅서 ☎ 1811-0515**
- 전자우편 jejueo0515@hanmail.net
- 누리집 http://www.jst.re.kr/manageBoard.do

## 연구 수행

**◎ 연구진**

- **총　　괄**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연구책임**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공동연구**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연구보조** 서수빈, 오은주

**◎ 자문위원**

-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03700
9 791197 484940
ISBN 979-11-974849-4-0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❸
비매품